

APEC 貿易自由化的 經濟的 效果

政策研究 96-09

鄭仁教

1996. 1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APEC 貿易自由化的 經濟的 效果

鄭仁教

1996. 1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1989년 발족된 APEC의 가장 핵심적인 두가지 특징은 역내 貿易 및 投資自由化를 2010/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것과 다른 지역협정과는 달리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APEC이 2010/2020년 자유화일정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내자유화가 2020년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7년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경험을 들 수 있다. 관세를 인하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한 소득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관세인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또 다른 근거로 오는 11월 마닐라 정상회담에 각 회원국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APEC 관세인하에 대한 개별실행계획(IAP)은 이미 UR에서 확정된 WTO 관세인하계획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 UR 관세인하가 완료되는 2005년 이후의 APEC 관세인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APEC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2010/2020년 자유화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WTO 관세인하 이후 가능한 10가지의 무역자유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APEC의 특징중 하나는 역내에서 인화된 관세를 다른 역외국에도 조건없이 제공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APEC 회원국들은 역외국의 無賃乘車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무조건적 개방적 지역주의와 역외국들도 APEC 관세인하와 동일한 비율의 관세를 인하할 경우에 만 APEC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인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개방적 지역주의와 같은 두가지 방안하에서 APEC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의 의의는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관세를 인하한 국가에게 관세인하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경제학의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에 대한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地域協定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APE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本 研究院의 鄭仁教 박사가 집필하였으며, 이 연구를 위하여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인제대학교의 金南斗 교수와 本院의 魯在峯 박사에게 사의를 표한다. 또한 원고정리와 교정에 힘써 준 金英美 연구원과 기타 자료정리에 힘써준 金貞云 연구조원에게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정책당국 및 지역협력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6年 11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柳 莊 熙

〈目 次〉

I. 世界經濟와 亞·太 지역 국가의 經濟協力	9
1. 亞·太 지역경제의 위상과 APEC 경제의 특징	9
2. 亞·太 지역경제의 다양성	12
3. 亞·太 지역내의 小地域主義	13
4. APEC의 出帆과 亞·太 지역의 經濟協力 論議	15
5. 亞·太 지역의 地域主義	19
II. APEC 무역자유화.....	23
1. 自由貿易의 妥當性.....	23
2. APEC의 무역자유화	28
3. WTO의 관세인하	34
(1) 公産品 관세인하	35
(2) 農産品 관세인하	35
(3) UR 前·後의 관세율	39
4. WTO 이후 APEC 관세인하.....	41
III. 일반균형시뮬레이션 模型과 母數	45
1. 産業 및 국가 구분.....	45
2. 一般均衡 시뮬레이션(CGE) 模型.....	47
(1) 市場均衡(market clearing) 조건	50
(2) 아밍톤의 구조	52
(3) 소비자 需要體系	54
(4) 생산자 生産構造	56
(5) 價格聯關函數	59
3. 模型의 母數設定.....	61

IV. 시뮬레이션 結果의 해석 및 논의	65
1. APEC의 배타적 관세인하.....	66
(1) 후생변화	66
(2) 소득변동과 물가지수	70
(3) 무역수지	74
2. APEC의 개방적 관세인하.....	76
(1) 후생변화	76
(2) 소득변동과 물가지수	80
(3) 무역수지	83
(4) APEC과 개방적 지역주의	85
3. 조건부 관세인하.....	87
(1) 유럽연합의 관세인하	88
(2) 기타 지역의 관세인하	91
4. 전세계 교역자유화.....	95
(1) 후생변화	95
(2) 소득과 물가수준	97
(3) 무역수지	101
V. 結論 및 政策示唆點	105
參考資料	111

〈表 目 次〉

〈表 1〉 세계경제에서 APEC의 위상(1994).....	9
〈表 2〉 APEC 회원국의 경제현황(1994)	13
〈表 3〉 APEC내의 小地域協定(1994).....	14
〈表 4〉 UR前과 UR後의 實效關稅率.....	36
〈表 5〉 산업 및 국가 구분	46
〈表 6〉 품목별 代替彈力性	63
〈表 7〉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후생변화율	68
〈表 8〉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소득변화율	70
〈表 9〉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물가지수 변화율	72
〈表 10〉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무역수지 변동액	75
〈表 11〉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후생변화율	77
〈表 12〉 배타적 지역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국가별 수출변화율	79
〈表 13〉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소득변화율	81
〈表 14〉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물가지수변화율	82
〈表 15〉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무역수지변화율	84
〈表 16〉 APEC과 유럽연합의 관세인하의 후생효과	89
〈表 17〉 NAFTA와 유럽연합의 輸出·輸入 및 교역조건 변화율	91
〈表 18〉 APEC과 기타 지역 관세인하의 후생효과	92
〈表 19〉 APEC과 기타 지역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	94
〈表 20〉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의 지역별 후생변화율	96
〈表 21〉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의 지역별 소득변화율	98
〈表 22〉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의 지역별 임금변화율	99
〈表 23〉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의 지역별 물가지수변화율	101
〈表 24〉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의 지역별 무역수지 변화액	103

〈圖 目 次〉

〈圖 1〉 관세제거의 경제적 효과	24
--------------------------	----

I. 世界經濟와 亞·太 지역 국가의 經濟協力

1. 亞·太 지역경제의 위상과 APEC 경제의 특징

9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경제의 비중은 대서양圈에서 아시아·태평양圈으로 이동하여 94년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亞·太 지역)의 GNP는 세계 총 GNP의 59.7%, 전세계 교역량의 46.0%, 그리고 세계 총 인구의 40.8%를 차지하고 있다(〈表 1〉 참조). 亞·太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가 域內貿易自由化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경우, 동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로 기존의 NAFTA를 포함하게 되고 EU의 2배가 넘는 단일 시장이 형성되어, APEC의 세계경제상 차지하는 잠재적 시장성은 輸出主導形 경제정책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表 1〉 세계경제에서 APEC의 위상(1994)

구 분	인구 (백만명)	GNP (억 달러)	교역 (억 달러)
전세계	5,287 (100%)	242,640 (100%)	84,995 (100%)
APEC	2,159 (40.8%)	144,577 (59.7%)	39,100 (46.0%)
NAFTA	383 (7.2%)	76,648 (31.6%)	16,525 (19.4%)
EU	371 (7.0%)	72,018 (29.7%)	31,853 (37.5%)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6,1)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1995 Yearbook

亞·太 지역은 지난 4반세기중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었으며 성공의 잠재력을 보여왔다.¹⁾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세계 3대 경제대국과 아

1) Bergsten and Noland(1993) 참조.

시아의 4마리의 龍이라고 불리는 가장 역동적 성장국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회원국으로 있는 APEC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은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ANIEs는 높은 성장과 투자력을 보유함으로써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ASEAN 국가들의 고도성장이 亞·太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지향적 성장 전략을 채택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중심이 된 GATT 체제의 자유로운 무역질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세계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지역협정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우리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나 미국, 일본 등 제한적인 시장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이들 주요 교역국의 關稅 및 非關稅障壁 등의 규제 및 WTO 체제하에서 市場開放擴大와 지적소유권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WTO 체제하에서 각국의 최우선 정책이 자국의 경제적 실익추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추세는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지역협정에도 가담하지 않은 나라에게는 앞으로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우리의 경제여건상 海外進出이 증가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시장개방 압력 또한 거세어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亞·太 지역에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한국은 세계 시장 지향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역내 모든 국가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에서 모범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내의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만약 APEC내의 지역협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우리나라가 APEC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우리의 경제와 외교적 역량을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PEC의 자

유무역지대 설립이 순조롭게 정착되고 EU처럼 經濟同盟의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국제통상협상에서도 APEC 전체가 한목소리로 협상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亞·太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APEC은 지금까지 체결된 지역협정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APEC의 특수성으로는 첫째, APEC 참가국들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 상이한 사회·경제적 제도 및 경제발전단계 등의 多樣性을 들 수 있다. 둘째, 다른 지역협정과는 달리 역내에 3개의 小지역주의(NAFTA, ASEAN, ANZCERTA)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APEC 경제협력은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亞·太 經濟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맥락에서 開放的 多者間 貿易體制 강화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APEC내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의 조화로운 발전도 함께 고려하게 되고, 뒤에서 설명할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함으로써 APEC의 관세인하 혜택을 非APEC 국가에게도 제공하게 된다.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먼저, 모든 非APEC 국가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관세인하를 공여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떠오른다. 현재 APEC이 고려하는 지역주의란 무조건적인 관세인하혜택의 공여를 의미하지만, 회원국내의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차선의 방안은 조건부 개방적 지역주의를 들 수 있다. 즉, 역외국이 APEC의 관세인하에 해당하는 크기의 관세를 인하할 경우에만 APEC의 관세인하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APEC 회원국의 무상공여에 대한 국내 정치적 압력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외국의 관세인하를 유도하게 됨으로써 결국 전세계 교역자유화에 공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亞·太 지역경제의 다양성

〈表 2〉는 APEC 회원국²⁾의 경제현황과 경제적 지표상으로 본 국가간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함께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 달러 미만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GDP 성장률이 年 10% 이상인 중국과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과 브루나이같은 성장률이 낮은 나라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중국이 年 20%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年 2% 미만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다. 교역규모면에서는 아시아 개도국(ANIEs)이 2,000억달러에서 3,000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들 18개국중 미국과 일본은 GDP 규모가 1994년말 현재 각각 6조 4천억달러와 4조 3천억달러에 달해 경제력면에서 이들 두 나라가 APEC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일 정도로 중심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中間 그룹의 국가로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 한국, 호주, 대만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는 5,500억달러(캐나다)에서 2,160억달러(대만) 정도의 국내총생산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위 그룹의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의 ASEAN 국가들과 칠레, 홍콩,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APEC 회원국들의 다양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PEC은 모든 회원국의 의견이 동일하게 존중되는 합의제 의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약한 국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극복하는 문제가 성공적인 APEC 경제협력의 관건일 수 있다.

2) 현재 회원국은 18개국으로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캐나다, 멕시코, 칠레,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파푸아 뉴기니이다.

<表 2> APEC 회원국의 경제현황(1994)

구 분	GDP (십억달러)	1인당 GDP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輸出 (십억달러)	輸入 (십억달러)
미국	6,738	26,096	4.1	2.6	6.1	502.5	668.6
캐나다	550.6	19,074	4.5	2.05	10.4	165.38	152.1
일본	459.1	36,728	0.6	0.7	2.9	384.0	238.2
호주	320.2	17,945.4	4.5	1.9	10.5	46.8	50.0
뉴질랜드	50.0	14,164	3.7	1.7	7.5	11.99	10.6
중국	508.2	424.0	9.97	24.1	N/A	102.6	95.3
대만	237.2	11,604	6.5	4.1	N/A	93.0	85.3
홍콩	132.8	21,761	5.4	8.1	N/A	151.3	161.8
브루나이	4.1	15,876	1.0	2.0	N/A	2.2	3.1
싱가포르	50.0	17,600	10.1	3.1	N/A	96.5	102.4
한국	379.6	8,530	8.4	6.2	2.4	96.0	102.3
말레이시아	61.0	3,797	8.9	3.7	N/A	58.74	59.6
태국	143.2	2,399	8.5	5.0	N/A	41.8	54.3
인도네시아	174.7	780	7.3	9.6	N/A	37.95	30.6
필리핀	63.9	946	4.3	9.1	N/A	13.4	22.5
멕시코	358.0	4,134	3.5	7.0	3.7	60.9	79.4
파푸아뉴기니	4.9	1,225	12.3	2.9	N/A	2.48	1.1
칠레	52.2	3,755	4.2	11.3	5.9	11.6	10.9

資料: APEC 會員國의 經濟現況과 對韓 經協關係, 對外經濟政策研究院(1995).

3. 亞·太 지역내의 小地域主義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GATT 체제하에서 지역협정을 통한 경제통합과 병행하여 발전되어 왔는데, WTO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부터 1994년 사이에 98개의 지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중 APEC 이 여타 地域協定과 다른 점은 역내에 3개의 小지역주의(NAFTA,

ASEAN, ANZCERTA)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亞·太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의가 발전되어 왔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이 60년대 후반 정치적인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출발한 이후 2003년까지 아시아 自由貿易地帶(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³⁾ 북미지역에서는 NAFTA가 출범하였고,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간 경제협력 (ANZCERTA: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다. <表 3>은 세계 총수출에서 APEC의 3개 소지역주의의 역내수출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NAFTA, ASEAN, ANZCERTA는 각각 전세계 수출중 17%, 6%, 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소지역주의들이 APEC 경제협력체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으나,⁴⁾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ANZCERTA는 두 나라의 경제규모와 교역규모가 작으므로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APEC 역내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비중이 큰 ASEAN과 NAFTA는 APEC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SEAN의 경우에는 APEC내에서 中間 위치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7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국가들의 의견이 APEC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NAFTA는 비록 3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미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APEC내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들 소지역주의와 APEC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APEC내 소지역주의들의 주요 규정(provisions)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Milnes(1996) 참조.

4) 또한 EAEC(East Asia Economic Caucus)와 중화경제공동체(Greater Chinese Economic Community)가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교들에 의하여 각각 제안된 바 있다.

〈表 3〉 APEC내의 小地域協定(1994)

	총수출 (백만 달러)	역내수출 (백만 달러)	역내수출/총수출 (%)	GDP (백만 달러)
APEC	1,918,369	1,405,020	46	12,112
NAFTA	730,617	347,826	17	6,928
ASEAN	256,504	57,590	6	415
ANZCER	59,394	5,678	1	373

資料: Harmonising Sub-regional Arrangements within APEC, Milnes (1996)

4. APEC의 出帆과 亞·太 지역의 經濟協力 論議⁵⁾

亞·太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에 대한 학술연구 차원의 논의는 1960년 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나 단체형태의 민간협력기구는 1967년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太平洋經濟協議會(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 PBEC)의 출범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출범 당시의 PBEC는 태평양 연안의 5개 국가(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⁶⁾로 구성되었으며, 민간 경제계의 입장에서 亞·太 지역 국가간의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한 亞·太 지역내 경제협력체를 설립하는데 이바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 정부의 지원하에 개최된 태평양협력세미나의 결과로 형성된 太平洋經濟協力會議(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 PECC)는 PBEC의 순수 민간 차원의 논의 형태에서 벗어나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학계, 실업계, 정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및 정책협조를 논의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교역, 합작투자 등 역내국가간 연대를 강화하여 亞·

5) APEC 경제협력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柳莊熙(1995) 참조.

6) 현재 PBEC의 회원국수는 19개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대만, 콜롬비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피지, 태국, 러시아, 멕시코, 칠레, 홍콩, 페루이다.

太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한편 70·80年代 亞·太 지역 신흥공업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가 고도 성장을 달성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력을 유지 및 심화시키는데 있어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이 지역경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역내정부간 협의를 위하여 공식 채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兩者間 지역무역협정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의 GATT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체제가 약화되었으며, NAFTA와 EU의 출범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 강화 및 이러한 지역주의에 의한 새로운 保護主義 대두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특정 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亞·太 지역 국가들의 경제유대 강화가 절실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속에서 APEC은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亞·太 지역 12개국⁷⁾ 대표들이 참석한 제 1차 閣僚會議에서 태동되었다. 제1차 閣僚會議은 亞·太 지역의 점진적, 개방적 통합을 채택하였으며, APEC은 亞·太 지역에서 형성된 최초의 정부간 공식협의체로서 PBEC와 PECC와는 달리 경제협력의 주체가 亞·太 지역의 정부로 격상됨으로써 경제협력의 논의에 있어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APEC은 2차 閣僚會議(1990년 7월, 싱가포르)와 3차 閣僚會議(1991년 11월, 서울)를 거치면서 무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에너지, 수산, 통신, 교통, 관광, 해양자원보존 등의 10대 협력사업이 확정되어 활발한 협력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閣僚會議의 주요 목표는 亞·太 지역 및 세계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개방적·다자간 교역질서의 확립 및 강화, GATT 자유교역원칙에 의거하여 교역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있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중화경제권인 중국, 대만 및 홍콩이 APEC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동북아지역의 주요 국가가 모두 APEC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亞·太 지역의 실질적인 經濟協力機構로서 위상을 다지게 되

7) 12개국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이다.

었다. 이밖에도 경제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역내의 경제성장, 자본 및 노동, 물가, 무역수지균형, 무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연구하는 경제동향 및 현안그룹의 신설을 의결하였다. 亞·太 지역 협력 논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역내무역자유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토의하고, GATT의 자유무역원칙내에서 역내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합의하였다. 또한 APEC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조치중의 하나로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중·단기 과제를 연구하는 역내무역자유화그룹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무역자유화그룹의 주요 연구대상은 세계경제환경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APEC 회원국간의 상호연관성과 관련된 정책현안, 역내 재화, 서비스, 투자 및 기술이동에 영향을 주는 각 회원국의 무역왜곡 및 장애요소, 무역정책 개선, 역내 무역장벽 확인 및 더 나아가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4차 閣僚會議(1992년 9월, 태국 방콕)은 APEC이 국제 포럼수준의 협력차원으로부터 공식 국제기구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3년 11월 미국 시애틀 근교 블레이크 아일랜드에서 제1차 APEC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이로써 APEC은 亞·太 지역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국제기구로 변화하는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APEC 정상들은 저명인사그룹(EPG)이 제안한 “亞·太 지역에서의 自由貿易 달성과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촉진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착수안”을 채택함으로써 亞·太 經濟圈의 창설을 천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저명인사그룹이 제안한 “APEC의 비전 : 亞·太 經濟共同體를 향하여”(A Vision Statement for APEC : Towards an 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를 채택하였으며, 同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APEC의 장기 목표인 亞·太 지역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亞·太 지역 경제공동체 확립을 위한 실천방안들이다.

제2차 정상회담(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각국 정상들은 APEC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였다. 보고르 선언의 주요 내용은 1) 급변하는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 환경에 대

한 공동의 해결책 마련, 2) 세계경제의 확대 및 개방적 다자주의 무역 제도의 지원, 3) 역내 경제주체간 상품,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무역 및 투자장벽의 완화, 4) 역내 국민들의 경제 성장 혜택 및 교육, 5) 교통과 통신개발을 통한 역내 경제주체들의 연계 및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의 확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APEC 정상들은 역내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자유화 일정을 제시하였는데, APEC 역내 선진국들은 2010년까지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2020년까지 貿易 및 投資自由化를 이루도록 합의하였다. 제 3차 APEC 정상회담(1995년 11월 19일, 일본 오사카)에서는 제 2차 정상회담의 보고르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을 채택하였다. 본 행동지침에 따라 APEC 회원국은 각국의 貿易 및 投資自由化를 위한 세부계획서인 행동지침(Action Plan)을 제출하게 되며, 이로써 보고르 지도자회의에서 채택된 APEC의 자유무역지대 결성의 목표를 행동으로 구체화시키는 실천적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오사카 행동지침은 貿易·投資自由化 추진에 관한 9개 항목의 일반 원칙⁸⁾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9개 일반 원칙중 산업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를 자유화의 대상으로 한다는 ‘포괄성’의 원칙과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고 다양한 문화권으로 구성된 APEC 구성국들의 특수한 사정을 존중하여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신축성’의 원칙은 서로 대립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성’과 ‘신축성’은 APEC 지역내의 貿易自由化의 폭을 최대한 넓히면서 다양한 회원국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는 APEC의 기본정신의 하나인 ‘협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사카 행동지침은 9개 항목의 일반원칙에따라 貿易·投資自由化의 추진

8) 9가지 일반 원칙은 (1) 포괄성(Comprehensiveness), (2) WTO 협정과 의 일치성(WTO-Consistency), (3) 형평성(Comparability), (4) 무차별성(Non-discrimination), (5) 투명성(Transparency), (6) 현상동결(Standstill), (7) 동시착수, 지속적 추진, 차별적 시간 계획(Simultaneous Start, Continuous Process and Differentiated Time Tables), (8) 신축성(Flexibility), (9) 협력(Cooperation)이다.

을 위한 關稅, 非關稅 조치, 서비스, 投資, 표준과 적합, 통관 절차, 지적 재산권, 분쟁조정 등 15개 분야별로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였다. 또한 APEC 經濟·技術協力の 각 세부분야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공동정책의 개념(Common Policy Concepts), 협력사업(Joint Activities), 정책대화(Policy Dialogue)의 세가지 기본요소를 규정하였다.

5. 亞·太 지역의 地域主義

오사카 정상회담(1995년 11월)에서 APEC 정상들은 亞·太 지역 자유 무역지대 추진에 있어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본 방침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즉, 亞·太 지역내의 국가들이 무역자유화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정하고 적극적으로 역내국가간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가는 반면, 개방적 지역주의는 역내 국가들이 이러한 貿易自由化 조치의 결과를 域外의 모든 국가에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역외국은 亞·太 지역의 貿易自由化 과실을 APEC 국가들과 공유하게 되며 亞·太 지역의 낮아진 무역장벽으로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무역전환의 불이익 없이) 후생이 증가된다. 이러한 개방적 지역주의는 다른 지역협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책으로서 지역주의가 배타적인 블록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교역의 자유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단적인 경우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는 지역협정으로부터 생기는 貿易創出의 이득보다는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손실이 더 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라도, 특정 지역협정에 속한 국가들중 일부는 자유무역지대 결성으로 후생이 감소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APEC의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불완전 경쟁요소를 모형에 도입한 Cheong(1995)의 논문에서 태국은 APEC의 무역자유화

가 실현되었을때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그러나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地域主義(Regionalism)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相互依存性和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결합하여 지역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역내국만의 閉鎖的 貿易自由化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간 무역협정을 통하여 무역협정에 참가한 국가들은 貿易自由化의 혜택을 회원국가간에 제공하는 것이다. Viner(1950)에 따르면, 地域主義는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自由貿易地帶(Free Trade Area), 關稅同盟(Customs Union), 共同市場(Common Market) 및 經濟同盟(Economic Union)으로 분류된다. 自由貿易地帶는 2개 이상의 국가들이 국가간의 상품교역, 노동력이동, 자본거래 등의 국제교역에 부과되는 關稅 및 非關稅 障壁, 수량제한 등을 제거하여 역내에서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회원국들은 非會員國에 대하여 關稅, 非關稅 障壁으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차별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은 자유화된다. 이는 경제통합의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원국 각각은 역외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각국 고유의 關稅率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회원국들이 역외 국가와의 교역에 대해서 공통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關稅同盟이 되며, 재화를 비롯한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共同市場이 된다. 더 나아가 회원국 전체를 위한 공동의 경제정책 조정과 협력이 피해지고 공동 경제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經濟同盟이 된다.

自由貿易地帶의 설정은 자유무역대상영역의 크기에 따라 참여하는 국가 혹은 집단이 각자의 모든 국제거래를 일괄적으로 자유화하여 自由貿易地帶내의 모든 국가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결합되는 전면적 자유무역시대와 각국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이해에 입각하여 특정 산업 혹은

9) 태국의 후생감소가 생기는 이유는 貿易創出의 혜택보다 상대적으로 큰 무역전환의 불이익과 태국의 교역조건 악화 때문이다.

특정 경제부분에 국한, 상호간 시장을 개방하는 部門別 자유무역지대로 대별될 수 있다. APEC은 모든 국제교역이 자유화되는 전면적 自由貿易地帶의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多者間 貿易體制(WTO 24 조)하의 무역장벽에 대한 특정조건¹⁰⁾하에서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간의 貿易自由化가 확산되면 全世界的인 貿易自由化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GATT의 지역협정체결 허용은 一部 국가간의 地域協定이 그 동안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에 익숙한 국가들로 하여금 貿易自由化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역외국 간에도 무역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협정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다수의 지역협정에 가입하는 국가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더 큰 지역협정의 형태로 발전되어 전세계의 무역자유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 특히, APEC의 경우 현재 배타적인 무역블럭인 NAFTA가 APEC에 포함되어 있고 APEC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NAFTA가 APEC내의 非NAFTA 국가들에게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NAFTA가 배타적 경제블럭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ASEM(Asia Europe Meeting)이 활성화되어 APEC의 貿易自由化와 같은 구도로 발전한다면, EU의 역외국가에 대한 배타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학자들간에 유럽과 북미지역간의 지역협정으로 구상되었던 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어, APEC, ASEM 및 TAFTA가 지역협정간 배타성을 버리고 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되면 세계경제통합은 예상보다 빨리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역간 무역협정은 비록 그 협정이 역외국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높이지는 않더라도 域外國은 지역협정전에 협정국에 수출하던 품목중 전부 혹은 일부는 지역협정국간의 무관세조치로 인하여 수출입

10) 지역협정의 설립으로 역내국들이 역외국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는 한(not on the whole higher or more restrictive) 허용된다.

패턴이 바뀔 수 있다. 즉, 관세인하前과 後에도 역외국의 수출업자가 받는 F.O.B. 가격은 일정하나, 협정체결후에는 수입업자의 역외제품에 대한 관세를 포함한 가격이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무관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이 줄게 된다. 이러한 교역패턴의 변화는 생산의 효율성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역내와 역외간의 차별적인 관세로 생긴 무역왜곡이다. 이러한 무역왜곡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의 생산은 줄고 비효율적인 역내 생산업자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어 지역협정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자유무역시대 설정에 대한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역외국의 경제적 손실을 예측하고 있다.¹¹⁾ 다만, 역내와 역외국가간 무역구조가 산업내(intra-industry) 수출입 교역비율이 높을 경우 역외국도 地域協定の 체결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협정 국가간 무역자유화가 역외국가의 후생증대를 실현할 수도 있다. 즉, 역내의 생산증가로 역외국으로부터 중간재수입을 큰 폭으로 늘리게 되면, 역외국의 수출은 협정체결전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Cheong(1995), Cox and Harris(1992), 및 Hunter *et al*참조

II. APEC 무역자유화

1. 自由貿易의 妥當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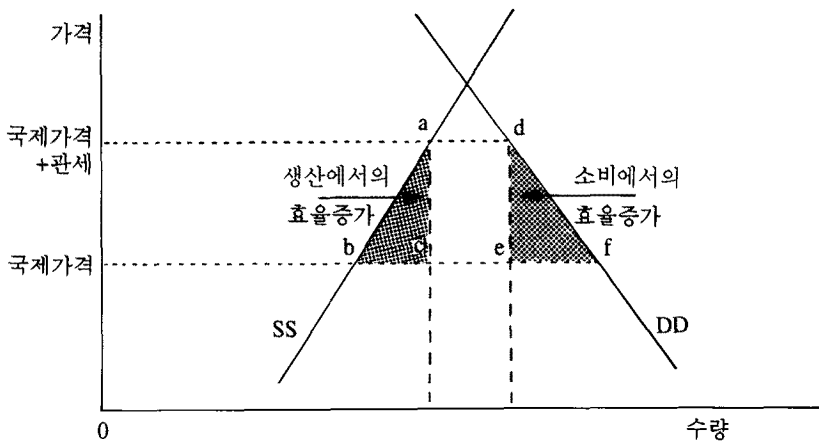
전세계에서 어떤 나라든 완전한 의미의 自由貿易을 행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 시대 이후로 가장 이상적인 통상정책수단으로서 自由貿易을 옹호해 왔다. 단순한 경제이론(손익분석)에 따르면, 자유무역의 우월함이 쉽게 드러나게 된다. 관세가 존재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수입이 막히게 되고, 오히려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자가 생산한 비싼 제품을 소비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왜곡 뿐 아니라 소비까지 왜곡되어 전반적인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자유무역하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인 부문에 투입하게 됨으로 생산과 소비의 왜곡에서 파생되는 효율의 손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自由貿易이 완벽한 정책은 아닐지라도, 각국 정부가 추구해야 할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자유무역으로부터 파생되는 經濟的 效率性은 국제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관세의 비용-효용에 대한 정태적 분석의 정반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보고서에 사용된 일반균형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그래프로 예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단순한 부분균형모델인 <圖 1>로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로 자유무역시대결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반균형하에서의 설명은 Vanek(1969)에 잘 나타나 있다. <圖 1>에서 DD와 SS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표시하며, 외국의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小國(small country)의 경제를 가정할 때,¹²⁾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 關稅

12) 경제적 大國(large country)의 경우 관세부과는 경제적 小國의 경우와는 달리 교역조건의

의 합과 같게 된다. 여기서 關稅를 제거하게 되면 사다리꼴 $abfd$ 만큼의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게 되나 사각형 $aced$ 에 해당하는 관세수입이 감소하게 됨으로 두 삼각형 면적 만큼의 純利益(생산자 효율성 증대 : $\triangle abc$, 소비자 효율성 증대 : $\triangle def$)이 생긴다. 이는 관세부과로 왜곡되었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가 정상화 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다. 역으로 關稅賦課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왜곡시켜 국민의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

〈圖 1〉 관세제거의 경제적 효과



自由貿易地帶 설립의 기본 목적은 自由貿易地帶 참여국간에 존재하는 關稅·非關稅 障壁을 제거하여 참여국간의 貿易自由化를 실현함으로써 역내국 각각의 比較優位가 있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소득을 증가시키고 인하된 관세로 수입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소득증가외에도 역내에서 가

개선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이 있으나, 한국과 같은 경제적 小國의 가정하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장 효율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시키게 된다. 일차적으로는 역내국의 比較優位商品이 관세인하폭만큼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되며, 따라서 역내국들은 自由貿易地帶 설립이전에 자국에서 생산하던 高費用의 국내 상품을 역내의 다른 국가에서 싸게 생산된 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값싼 역내 제품의 유입으로 국내 물가는 인하되며,¹³⁾ 이러한 물가인하는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어 일반적인 수요함수하에서는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수입상품의 가격하락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같은 명목소득으로 값싼 수입품이 소비가 가능하게 된다면 이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실질소득증가효과와 같게 되어 그 나라의 후생을 증가시키게 된다. <圖 1>에서 소비자 이익으로 표시된 Δdef 는 가격인하로 인한 수입품 소비증가에서 오는 후생의 증가를 표시한다.¹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역내의 값싼 수입품의 유입으로 자유무역지대 이전에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사용되었던 자원은 생산효율이 높은 다른 산업에 사용될 것이다. 자유무역지대 이전에 생산된 상품의 가치와 자유무역지대 이후 생산된 상품의 가치를 국제가격으로 환산하여 보면 自由貿易地帶 결성 이후 생산된 상품의 국제가치가 더 높게 됨으로 생산에서의 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생산면에서의 효율증가라고 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부분균형모형에서 그려보면 <圖 1>의 Δabc 로 표시된다. 생산구조에 따라 이러한 생산의 효율증가의 중요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즉,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모형의 경우 값싼 역내 수입품으로 방출된 자원이 규모의 경제가 있

13) 부분균형분석하에서 관세인하로 인한 물가인하의 의미는 부분균형분석하에서 자유무역지대 결성이후 역내의 값싼 상품이 수입되면 자유무역지대 이전에 비하여 물가가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에 그치게 되나, 일반균형분석하에서는 이러한 물가인하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수요증가의 정도에 따라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한 물가와 소득의 연관관계를 모형내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부분균형분석보다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分析의 우월성이라 할 수 있다.

14) 소득증가와 관련된 후생증가는 그래프에 표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는 산업에 고용되면 規模收益不變(constant returns to scale)의 경우보다도 더 큰 효율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동태적인 경우를 상정할 경우 이러한 생산의 효율증가로부터 오는 경제적 이익은 정태적인 모형에서 보다 더 크게 된다. 왜냐하면 동태적 모형하에서는 각각의 시물레이션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 전반을 비교하여 더 효율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더욱 더 크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효율성 증가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동태적인(장기적인) 측면과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더욱 더 잘 설명된다. 관세로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보호할 경우 국내 생산업체들을 외국의 경쟁업체들과 격리시킴으로써 국내 생산업체들의 경쟁을 약화시키며 초과이익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초과이익은 동 산업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유인하게 된다. 따라서 제한된 국내 시장규모에 비하여 너무 많은 기업이 보호된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게 됨으로 결국 개별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이하에서 생산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기업가에게 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수입품과 경쟁하기 위하여 생산면에서의 효율을 제고토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 외에, 정부가 輸出·輸入의 지침을 제공하는 官주도의 무역체제보다는 더 많은 기술 습득과 기술혁신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유무역에 대한 옹호의 근거는 비록 정부가 정밀한 계산에 바탕을 둔 나름대로의 적정한 수준의 關稅·非關稅 障壁을 도입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무역에 대한 정부간섭이 허용될 경우 이익집단의 로비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단으로의 소득재분배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自由貿易地帶를 결성한다고 해서 자유무역지대내의 모든 국

가의 후생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¹⁵⁾ 교역조건의 악화와 국내 시장의 실패를 근거로 자유무역(혹은 관세인하)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외국 수출품의 국제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 大國의 경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수입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시킨다. 이러한 혜택은 관세부과가 야기하는 비용을 一部 혹은 전부를 상쇄하고도 純利益이 될 수도 있다. 교역조건의 개선효과로 이러한 純利益이 생기는 경우 보호무역을 옹호할 수 있다. 교역조건의 개선효과가 수출국에 주는 혜택으로는, 輸出稅(export tax)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는 주요 산유국이 석유수출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OPEC의 石油輸出稅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교역조건개선을 근거로 한 보호무역옹호론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으로 小國일 경우, 수입품이나 수출품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미국과 같은 경제 大國도 독점적 위치를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상대 나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무역보복은 貿易戰爭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국제교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논거는 관세부과에 대한 생산자의 손익계산에는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향(손익)만 고려하지만, 반면에 간접적인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내생산이 경제 전반의 기술혁신을 가져오게 되나, 개별 기업은 생산량을 결정할 때 이러한 추가적인 혜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간접적인 혜택을 한계 사회적 이익곡선(marginal social benefit curve)으로 표시하면, 이러한 사회적 혜택이 <圖 1>에서 보여주는 關稅賦課가 초래하는 비용보다 더 클 수도 있으므로 保護貿易을 옹호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次善의 정책에 해당하며, 국내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즉, 외부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관세부과로 국내생산을 증가시키면, 생산자 및 소비자 잉여를 초과할 정도로 큰 추가적 이익으로 전

15) de Melo, Panagariya와 Rodrik(1992)은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으로 모든 역내국들이 후생이 惡化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체 사회적 효용이 증가할 수도 있으나, 관세보다는 동일한 양의 추가적인 생산량을 生産補助金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생산자 및 소비자 잉여의 손실은 없게 된다.¹⁶⁾ 따라서 이 경우에도 關稅를 통한 保護貿易보다는 自由貿易이 나은 정책이며, 국내적인 문제는 국내적 정책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APEC의 무역자유화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에서 APEC 18개국 정상들은 2010/2020년까지 貿易·投資自由化를 실현하기로 선언하였다. APEC 회원국들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계획은 선언된 시점까지 달성될 수도 있으나, APEC 회원국가간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측은 보고르 선언에 이은 95년 11월의 제 3차 APEC 頂上會談에서 채택된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이후 APEC 내에서 논의된 貿易·投資自由化 내용을 검토해보면 명확해진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은 完全無稅化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보이며, 만약 APEC내에서의 관세인하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시한다면 APEC 회원국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APEC이 지향하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관세인하가 배타적 지역주의보다는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우려되는 無賃乘車(free rider)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방적 지

16) 이 경우 생산보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 예산의 확보방법에 따라 分析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즉 정액세(lump sum tax) 부과로 생기는 수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분석이 간단하게 되나, 소득세부과의 경우 소득세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행위에 영향을 끼쳐서 사회적 효용의 손실이 생기게 됨으로 이러한 손실도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주의하에서의 無賃乘車란 APEC이 인하된 관세의 혜택을 역외국에도 제공하지만 역외국들은 APEC의 관세인하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APEC 역내국으로 수출을 증가시키게 되며, 결국 역내국가의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Young과 Huff(1995)의 연구는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이러한 無賃乘車의 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Young과 Huff는 APEC의 완전무관세화를 가정하고 APEC의 자유무역지대결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논문에 따르면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역외국에까지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APEC 회원국이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는 후생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無賃乘車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APEC 회원국들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EC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고찰하기 위하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APEC 무역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분석하고, 가까운 미래에 실행가능한 부분적 관세인하 가능성을 논의한다. APEC의 의사결정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APEC 고위실무자회의(SOM)에서 주요 안건을 실무차원에서 토의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閣僚會議에 제출한다. 閣僚會議에서는 다시 한번 토론을 거쳐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수정된 案을 APEC 頂上會談에 제출하게 되며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채택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96년에도 고위실무자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는데, 이 회의의 주요 목적은 95년 11월의 제 3차 APEC 頂上會談에서 채택된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을 달성하기 위한 마닐라 행동계획(Manila Action Plan)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96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될 제 4차 APEC 頂上會談에서는 마닐라 행동계획을 채택하게 되고, 각국은 97년 1월부터 이를 이행하게 된다. 마닐라 행동계획은 크게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s : IAPs),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s : CAPs)과 경제 및 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 EcoTech)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실행계획은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貿易・投資自由化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며 마닐라 행동계획의 핵심부분이다. 개별실행계획이 각국의 경제적・정치적 사정을 고려한 각국 고유의 貿易 및 投資自由化 일정인데 비하여, 공동실행계획은 APEC 貿易・投資自由化를 달성하는데 있어 공동으로 실행하여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이 연구와 관련하여 96년에 제출된 각국의 개별실행계획에 담긴 貿易・投資自由化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실행계획은 앞으로 APEC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각 항목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서로서, 관세, 비관세, 투자,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IPR), 원산지규정, 규제완화, 정부조달, 분쟁해결 등 WTO에서 논의되었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인하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므로 각국이 제출한 개별실행계획서에서 관세인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¹⁷⁾

APEC 개별실행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보고르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2010/2020년 APEC 무역자유화, 즉 모든 품목에 대한 無關稅化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만이 2010/2020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자국의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도 중장기 관세인하 일정을 서술함에 있어서 관세인하 품목을 예시한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UR에서 타결된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관세인하 일정 및 수준을 제시하고 WTO 이상의 관세인하는 대단히 추상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각국 정부가 APEC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관세인하 및 폐지를 꺼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관세부문에서도 자국의 비관세장벽

17) 최종 개별실행계획은 금년 11월 25일 필리핀 수빅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확정·채택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년 8월 21 ~ 23 일 필리핀 다바오에서 열린 제 3차 고위실무자 회의에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한다.

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 규정과 자국의 비관세장벽을 연계시켜 설명함으로써 APEC에서의 비관세장벽 완화는 WTO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합의를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조달과 규제완화 등이 이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개도국은 이들 항목에 대한 자국의 관행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비하여 선진국들은 정부조달과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출된 개별실행계획서를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UR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2005년까지는 UR 수준의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UR 결의사항의 이행이 끝나는 시점이나 그 중간에도 APEC 회원국들이 100% 무역자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무역자유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로서는 UR 무역자유화의 정도를 넘는 적절한 수준에서 APEC 부분 무역자유화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 무역자유화로부터 예상되는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시할 수 있다면 APEC의 지속적인 관세인하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먼저, 현재 제출된 개별실행계획서만으로 보면, APEC은 단순히 UR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WTO 내의 부속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이 '亞·太 지역 무역자유화'라는 APEC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짜임새 있는 확정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WTO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끝나는 시점인 2005년 이후에는 APEC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WTO 이후의 APEC의 추가적인 관세인하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각국이 무역자유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인식하게 되면 APEC이 EU와 NAFTA와 같은 지역협정으로 존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 1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였고, 배타적 지역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예상되는 후생

효과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와 비관세로 외국기업으로부터 보호를 받던 실업계의 로비로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즉 회원국의 경제계와 정치권에서는 역외국의 無賃乘車로 인한 폐단을 우려하여 APEC의 무역자유화 조치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역외국에 개방적 무역자유화조치에는 더욱 인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모형으로 개방적 무역자유화를 취할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여 줄 수가 있다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제학이론으로 보면, 배타적 지역주의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로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반면 무역전환(trade diversion)으로 인한 손실을 초래한다.¹⁸⁾ 무역전환이란 지역협정을 맺기 이전에 가장 효율적인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재화를 지역협정으로 인한 관세제거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역내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다. 그러나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는 이러한 손실이 제거되어 배타적 지역주의하보다 경제적 혜택이 더 커지게 된다.

한편 더 나아가 최근의 각종 국제회의에서는 APEC이 전세계 무역자유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¹⁹⁾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無賃乘車에 대한 APEC 회원국의 우려를 감소시키면서 무역자유화의 폭을 가능한 한 확대하기 위하여 APEC의 관세인하폭만큼 非APEC 국가들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表 5>에서 보듯이 이 연구에서는 세계경제를 17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15개 지역은 APEC 국가이고 나머지 두 지역은 非APEC 지역이다. 조건부 지역주의하에서는 非APEC 지역인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이 APEC의 관세인하혜택을 공유하기 위하여 APEC의 관세인하요구

18)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은 Viner(1950)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19) 예로써, 한미학술 심포지움(미시간 대학, 1996년 8월 28 - 30일), 무역정책포럼(서울, 1996년 9월 11 - 14일)들 수 있다.

에 응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만이 관세를 인하하고 기타 지역은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 경우와 반대로 기타 지역만 관세인하에 응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두 非APEC 지역이 APEC의 관세인하에 동시에 응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관세인하를 하게 됨으로써 이를 전세계 교역자유화라고 정의한다. 이 경우에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이점을 살리면서 역외국들도 관세를 낮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세계 무역자유화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APEC의 무역자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UR에서 결의된 關稅引下가 완전히 이행된 이후에 추가로 관세를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경제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는 단순히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APEC 부분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2005년까지 예정된 WTO 관세인하이후 APEC 무역자유화 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이다. 즉, 비록 APEC의 무역자유화 선언이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선언적 의미 이상의 법적인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에 WTO를 출범시킨 UR의 경우 關稅引下計劃과 기타 관련 법안은 이미 각국의 의회에서 비준됨으로써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고, UR에서 합의된 관세인하는 2005년까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APEC 각 회원국이 제출한 개별실행계획서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WTO 이후 관세인하를 논의하는 이유는 APEC의 關稅引下措置는 2020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전에 UR에서 합의된 關稅引下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WTO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추가의 APEC의 관세인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WTO의 관세인하후 APEC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세인하의 효과 예측(시뮬레이션) 이전에 WTO 관세인하를 수량화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두 단계로 실행하게 되는데, 첫 단계에서

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세계경제에 대한 데이터가 WTO의 關稅引下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으로, UR에서 합의된 관세인하를 WTO전의 데이터에 반영되도록 업데이트(update) 시킨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APEC 관세인하가 WTO하에서 인하될 관세를 제외한 추가의 관세인하를 말하기 때문이며, 이런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APEC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게 되면 WTO의 관세인하조치가 전세계적으로 실시된 이후의 세계경제의 생산, 소비, 무역 등에 관한 데이터를 얻게 된다. 둘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본 보고서의 APEC 관세인하 시뮬레이션에 사용하게 되며, APEC의 貿易自由化 시나리오 연구는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추가로 關稅를 인하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3. WTO의 관세인하

世界貿易機構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 온 GATT 體制하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GATT 體制와는 달리 WTO는 世界貿易秩序를 국제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경쟁 체제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동 기구는 회원국들의 구조적이며 포괄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WTO 설립안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WTO 회원국 각료들이 서명한 최종 결의안(Final Act)에 나타나 있다. 7년에 걸쳐 마무리된 多者間 貿易協商인 UR의 최종 결의안은 앞으로 다가올 20년간 世界貿易體制의 핵심적인 규칙을 만들면서,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 선언에서 언급되었던 거의 모든 협상 영역을 포함했다. 이전의 GATT 체제와 비교해 보면, UR은 非關稅 문제와 동시에 關稅引下를 통한 貿易自由化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非關稅障壁에

관한 주요 협정은 농산물의 非關稅障壁, 의류·직물에 대한 수량 규제 조치, 서비스, 무역 관련 투자 조치(TRIMs), 원산지 규칙,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하여 UR협상에서의 關稅引下措置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1) 공산품 관세인하

공산품 關稅引下는 UR협상으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이다. WTO 회원국들은 회원국의 貿易自由化 일정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關稅를 인하하되 WTO출범 후 5년간 일정한 同率關稅引下에 합의했다. 연속적인 인하계획은 매 익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국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WTO 회원국들은 UR 협상 최종 합의문²⁰⁾에 지정된 기한까지 합의된 關稅引下를 實行해야 한다. 공산품 關稅引下는 UR협상으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인데, WTO 회원국들은 1986-1988년 기준 관세의 1/3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 농산품 관세인하

농업부문에 관련된 UR 협상은 농산품과 농업 자체에 관련된 몇 가지 협정, 最小市場 接近問題, 국내 生産補助金과 輸出補助金에 대한 감축과 이에 대한 약속으로 요약될 수 있다. 농업 문제는 輸出入 국가 양쪽 모두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기 힘든 문제로 간주되고 있으나,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시장 중심의 무역환경을 촉진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협정들에 근거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의 농산물가격 지지정

20)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The Legal Texts (GATT 1994) 참조.

책과 기타 농산물에 대한 보호조치로 파생되는 왜곡을 줄이는 방법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 非關稅障壁(NTB)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등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같은 수준의 關稅賦課(tariffication)를 통해서 대체된다. 선진국의 경우 농산품 수입에 적용된 관세를 WTO 설립 이후 6여년에 걸쳐 금액 기준 36% 만큼 인하하고, 개발도상국들은 10년이라는 더 긴 이행기간에 걸쳐 선진국의 關稅引下幅의 2/3인 24% 만큼의 관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²¹⁾

〈表 4〉 UR前과 UR後의 實效關稅率

(단위 : %)

	호주(AUS)			캐나다(CAN)			칠레(CHL)		
	UR前	UR後	변화율	UR前	UR後	변화율	UR前	UR後	변화율
농산물	3.2	2.6	18.0	16.2	13.3	18.0	12.9	11.4	12.0
광업	0.2	0.2	0.0	0.0	0.0	0.0	20.0	20.0	0.0
섬유	26.7	16.1	39.7	8.7	8.7	0.0	20.0	20.0	0.0
의류	42.4	35.0	17.5	19.7	16.6	15.7	20.0	20.0	0.0
목재 및 종이	8.8	5.0	43.2	2.3	0.4	82.6	20.0	20.0	0.0
석유 화학	8.0	7.7	3.8	2.2	2.2	0.0	20.0	20.0	0.0
철강산업	9.2	0.0	100.0	6.5	0.4	93.8	20.0	20.0	0.0
비철금속	6.3	3.4	46.6	4.0	2.7	32.5	20.0	20.0	0.0
금속제품	17.3	12.5	27.7	2.8	2.8	0.0	20.0	20.0	0.0
운송수단	20.2	20.2	0.0	1.9	1.9	0.0	18.1	17.7	2.2
기계류	11.2	8.6	23.2	4.3	3.1	27.9	20.0	20.0	0.0
기타 제조업	11.4	6.5	43.0	4.8	3.0	37.5	20.1	19.1	4.2

21) Hathaway and Ingco(1995) 참조.

	중국 및 홍콩(CHK)			인도네시아(IDN)			일본(JPN)		
	UR前	UR後	변화율	UR前	UR後	변화율	UR前	UR後	변화율
농산물	2.3	2.0	12.0	27.5	24.2	12.0	85.0	69.7	18.0
광업	1.7	1.4	16.7	1.1	1.1	0.0	2.1	0.5	76.2
섬유	39.5	32.9	16.7	31.6	24.6	22.2	6.4	6.0	6.3
의류	23.6	19.7	16.7	9.6	9.6	0.0	13.1	10.2	22.1
목재 및 종이	14.9	12.4	16.7	10.5	7.6	27.6	2.3	1.2	47.8
석유 화학	15.4	12.8	16.7	6.0	6.0	0.0	3.8	1.6	57.9
철강산업	10.5	8.7	16.7	7.8	7.7	1.3	3.7	0.6	83.8
비철금속	9.5	7.9	16.7	8.8	8.8	0.0	1.5	1.5	0.0
금속제품	27.8	23.2	16.7	23.0	21.8	5.2	3.2	0.9	71.9
운송수단	40.1	33.4	16.7	22.6	19.0	15.9	1.9	0.0	100.0
기계류	16.4	13.7	16.7	14.5	14.2	2.0	1.1	0.1	91.0
기타 제조업	44.0	36.7	16.7	23.6	10.3	56.4	5.6	1.7	69.6

	한국(ROK)			말레이시아(MYL)			멕시코(MXC)		
	UR前	UR後	변화율	UR前	UR後	변화율	UR前	UR後	변화율
농산물	93.3	82.1	12.0	85.6	75.3	12.0	8.8	7.7	12.0
광업	4.3	4.2	2.3	2.8	2.5	10.7	4.4	4.4	0.0
섬유	19.1	15.1	21.0	24.0	18.5	22.9	14.3	14.3	0.0
의류	22.2	18.2	18.0	27.3	24.1	11.7	17.7	17.7	0.0
목재 및 종이	11.2	11.2	0.0	9.5	5.8	38.9	4.8	4.8	0.0
석유 화학	15.7	8.1	48.4	7.0	7.0	0.0	3.3	3.8	0.0
철강산업	10.9	0.5	97.2	6.0	6.0	0.0	10.4	8.2	21.2
비철금속	15.7	10.6	32.5	5.1	5.1	5.6	1.9	1.9	0.0
금속제품	20.6	12.8	37.9	14.2	12.7	10.6	14.2	14.2	0.0
운송수단	7.5	5.8	22.7	14.5	14.5	0.0	12.6	12.6	0.0
기계류	17.7	10.2	42.3	8.8	4.1	53.4	13.0	12.8	2.0
기타 제조업	30.2	13.8	54.3	17.4	6.9	60.3	8.5	8.5	0.0

	뉴질랜드(NZL)			필리핀(PHL)			싱가포르(SGP)		
	UR前	UR後	변화율	UR前	UR後	변화율	UR前	UR後	변화율
농산물	2.7	2.2	12.0	97.1	85.5	12.0	18.1	15.9	12.0
광업	0.1	0.1	0.0	10.7	10.7	0.0	0.0	0.0	0.0
섬유	6.0	6.0	0.0	38.3	28.2	26.4	0.1	0.0	100.0
의류	25.2	25.2	0.0	39.5	35.4	10.4	3.1	3.1	0.0
목재 및 종이	6.3	0.4	93.7	30.4	26.9	11.5	0.5	0.0	100.0
석유 화학	4.8	4.8	0.0	18.9	18.9	0.0	3.7	0.1	97.3
철강산업	5.1	5.1	0.0	13.7	13.7	0.0	0.0	0.0	0.0
비철금속	2.6	2.6	0.0	18.4	18.4	0.0	0.0	0.0	0.0
금속제품	9.5	9.5	0.0	31.6	31.3	0.9	0.0	0.0	0.0
운송수단	9.9	9.9	0.0	19.6	18.8	4.1	3.0	3.0	0.0
기계류	8.0	8.0	0.0	21.3	20.0	6.1	0.0	0.0	0.0
기타 제조업	10.1	8.3	17.8	37.4	20.3	45.7	3.5	0.1	97.1

	대만(TWN)			타일랜드(THA)			미국(USA)		
	UR前	UR後	변화율	UR前	UR後	변화율	UR前	UR後	변화율
농산물	80.0	70.4	12.0	66.5	58.5	12.0	19.5	16.0	18.0
광업	2.8	2.3	16.7	16.7	16.7	0.0	0.5	0.5	0.0
섬유	6.8	5.7	16.7	61.3	28.1	54.2	10.2	7.5	26.5
의류	7.4	6.2	16.7	47.8	30.0	37.2	16.6	15.2	8.4
목재 및 종이	3.8	3.2	16.7	25.4	17.0	33.1	1.1	0.3	72.7
석유 화학	4.6	3.8	16.7	33.7	30.7	9.0	8.2	3.0	63.4
철강산업	6.7	5.6	16.7	17.0	17.0	0.0	9.8	0.2	98.0
비철금속	3.2	2.7	16.7	15.7	15.7	0.0	3.4	2.6	23.5
금속제품	9.4	7.8	16.7	33.1	31.1	6.0	7.0	2.8	60.0
운송수단	15.7	13.1	16.7	55.4	46.5	16.1	2.7	2.7	0.0
기계류	5.4	4.5	16.7	35.1	26.2	25.4	16.5	1.5	90.9
기타 제조업	19.2	16.0	16.7	46.0	28.1	38.9	5.9	0.2	96.6

	유럽연합(EU)			기타 지역(ROW)		
	UR前	UR後	변화율	UR前	UR後	변화율
농산물	30.3	24.8	18.0	21.7	19.1	12.0
광업	0.1	0.1	0.0	7.0	5.8	16.7
섬유	10.3	6.8	34.0	29.6	24.7	16.7
의류	10.7	10.7	0.0	18.5	15.4	16.7
목재 및 종이	1.5	0.5	66.7	10.9	9.1	16.7
석유 화학	10.9	4.2	61.5	13.3	11.1	16.7
철강산업	4.8	0.5	89.6	13.6	11.3	16.7
비철금속	1.0	1.0	0.0	11.8	9.8	16.7
금속제품	3.5	3.1	11.4	16.1	13.4	16.7
운송수단	5.0	5.0	0.0	16.4	13.7	16.7
기계류	8.3	2.9	65.1	13.4	11.2	16.7
기타 제조업	7.8	3.1	60.3	23.3	19.4	16.7

資料: Francois, McDonald and Nordstrom(1995)

(3) UR前·後의 관세율

〈表 4〉는 세계 주요 지역의 UR前과 UR後의 品目別·國別 實效關稅率을 나타낸다. 17개 국가(지역)중 앞부분의 15개 국가는 APEC 국가이고, 나머지 2 지역은 유럽연합과 유럽을 제외한 기타 지역이다. 정확한 UR 關稅引下를 계산하려면, 각 국가별로 각 상품의 輸出·輸入에 관련된 수천 가지의 關稅를 분석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集計(aggregation)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本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산업별·품목별 분석 대신 비교적 단순하게 UR의 關稅引下幅을 계산하고, 그 대신 貿易自由化의 경제적 효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노력하였다. 關稅率(1992년 기준)은 품목별 세율을 수입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實效關稅率이고, 농업부문의 일부 품목은 關稅로 환산한 非關稅障壁을 포함하고 있다.

UR이전(1993년)의 實效關稅率은 GT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구

하였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의 품목별 수입액은 국내수입가격과 국제가격으로 환산한 데이터를 모든 수입원천국(source country)에 대하여 합을 구하면, 국내가격(관세포함) 기준 및 국제가격 기준으로 환산한 각국의 품목별 총수입이 된다. 국내가격기준 총수입액과 국제가격기준 총수입액을 국제가격기준 총수입액으로 나누면 <表 4>에서 UR前의 實效關稅率이 된다. UR에서 합의된 품목별·국가별 관세인하의 크기는 Francois, McDonald, and Nordstrom(1995)의 연구를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UR後의 關稅率이 UR前 關稅率보다 낮고, 따라서 UR의 貿易自由化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으나, 관세율의 크기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²²⁾ UR이후에 關稅率이 인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UR前과 後에 關稅率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Francois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농업에 대한 UR의 貿易自由化 크기를 연구하지 않고, 공산품 貿易自由化만 분석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APEC의 회원국인 대만, 중국과 홍콩은 아직 WTO의 회원국이 아님으로 이들의 WTO 貿易自由化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非APEC회원국들의 WTO 關稅引下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장기 모형이고, 모형이 예측하는 시점에는 이들 국가들도 WTO 회원국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국가도 WTO 회원국이라는 가정하에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의 경우 WTO 關稅引下 기준 시점이 1986-1988년도이고 GTAP 데이터는 1993년도 기준인 것을 감안하여 UR에서 합의한 平均引下率(선진국 36%, 개도국 24% 關稅引下)의 50%를 감

22) Francois, McDonald, and Nordstrom도 UR前 관세율을 계산하였는데, 이들의 수치와 본 보고서에 나타난 UR前 實效關稅率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Francois와 그의 동료들은 GTAP(1994)년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본 보고서에서는 1996년 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축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1993년 GTAP 데이터의 實效關稅率에서 선진국은 18% 인하하고, 개도국(대만, 중국 및 홍콩 포함)은 12% 인하한 것으로 한다. 非WTO 회원국인 대만, 중국 및 홍콩은 UR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1986년부터 1994년 사이에 WTO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인하의 노력을 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1993년의 實效關稅率을 UR협상의 합의대로 1/3인하하는 것은 기존의 회원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인하율로 보인다. 따라서 UR 공산품에 대한 關稅引下率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3/1의 절반인 16.7%)의 關稅를 인하하는 것으로 한다. 本 연구에서 非APEC 회원국은 유럽연합(EU)와 기타 지역(ROW)으로 분류되고, 유럽연합의 WTO 관세인하폭은 Francois와 그의 동료들의 논문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기타 지역은 대만, 중국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4. WTO이후 APEC 관세인하

〈表 4〉에서 APEC회원국 아래 나타난 ‘UR後’ 축 아래에 있는 숫자는 UR後의 關稅率이고, APEC의 貿易自由化를 위한 中間 단계의 APEC 貿易自由化 措置는 이들 숫자를 어떤 비율로 낮추는가 하는 문제이다. APEC 지역내의 100% 關稅除去를 의미하는 貿易自由化로 가는 중간 단계의 關稅引下 시나리오는 각국의 정치적,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정의될 수 없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PEC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미국 및 일본과 같은 경제부터 태국, 필리핀 같은 후발개도국까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가 섞여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상이한 면이 많다. 또한 APEC 역내에는 NAFTA, ASEAN 및 CER과 같은 小地域協定을 포함하고 있어서 小地域協定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 小地域協定과 기타 지역간의 關稅

引下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협정 참가국들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 상이한 사회·경제적 제도 및 경제발전단계에 바탕을 둔 多樣性에서 파생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APEC 域內에서의 關稅引下로 인하여 경제적 후생이 감소되었거나, 기타 거시경제변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들에게는 손실을 APEC 차원에서 보상해 주거나 關稅引下 일정을 조절해 주게 되면 APEC내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APEC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域內 貿易自由化로 가는 중간단계의 關稅引下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것도 역내 경제 협력을 원만히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간단계의 關稅引下 시나리오는 NAFTA, EU와 같은 自由貿易地帶에서도 완전 無稅化이전에 몇 단계의 관세인하 스케줄을 준비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亞·太 지역의 多樣性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의 自由貿易地帶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단계의 關稅引下 시나리오는 WTO 關稅引下 합의가 실행된 후 실행될 關稅를 추가로 어떤 비율로 인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WTO 關稅引下後에 실행되는 각국의 關稅率을 100%으로 보고 이러한 WTO後 100% 關稅를 APEC 회원국이 인하하는 비율을 말한다. 본 연구의 첫 목적은 APEC이 관세를 인하하고 이를 역외국까지 관세인하의 혜택을 제공할 때 과연 APEC국가들의 후생이 배타적 지역주의를 취하는 경우 보다 나아지는가를 계량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무역창출의 이익이 무역전환효과보다 클 경우 후생이 향상된다. 다만 一部 국가는 지나친 무역전환효과로 인하여 후생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무역전환의 불이익이 전혀 없게 되고 무역창출의 효과만이 있게 됨으로 모든 국가의 후생이 향상되고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생길 수 있는 후생이 악화되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배타적 지역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예측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러한 면을 수치로 보여 준다면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경제학적인 토대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EC 무역자유화 방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APEC 국가들이 세계의 무역자유화에 공헌하면서 더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조건부 지역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는 역외국가는 후생이 악화되나,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는 관세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후생이 향상된다. 또한 역외국들도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싼 물건으로 인하여 역외국들의 물가도 인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APEC 국가들이 역외국가들에게 APEC 관세인하와 같은 정도의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있다. 역외국들이 APEC의 조건부 관세인하에 상응하는 크기의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지역주의가 WTO 관세인하와 같은 범세계 교역자유화로 이르는 가능성의 길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조건부 관세인하하에서는 무역창출외에 역외국의 무역장벽완화로부터 또 다른 경제적 혜택이 생김으로 개방적 지역주의보다도 더 높은 후생의 향상이 예상된다.

지역협정으로 낮아진 무역장벽의 혜택을 역외국에게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배타적 지역주의, 개방적 지역주의 및 조건부 지역주의의 3가지 방법하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비율로 관세를 낮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는 가능한 여러 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이들 시나리오하에서 각국의 후생과 다른 거시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가 다음의 10가지 비율로 인하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먼저 선진국 개도국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同率引下 방식과 UR에서처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서 선진국에는 개도국보다 높은 인하율로 낮추게 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同率引下의 경우 33%, 50%, 66%, 75% 인하의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서로 다른 비율의 관세인하를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개도국이 33% 인하할때 선진국은 50% 인하하는 방안과 선진

국이 개도국의 2배인 66%와 그 이상인 75% 인하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또한 개도국이 50% 인하할 때 선진국은 66% 인하하거나 75%로 인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선진국이 75% 인하하고 개도국은 66%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일반균형시물레이션 모형은 정태적(static) 모형이지만, 서로 다른 관세인하율하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정태적(comparative static)인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중 선진국이 50% 관세인하를 단행하고 개도국이 33%의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를 2005년의 APEC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해석하고, 선진국이 66%, 개도국이 50%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2010년의 결과로, 선진국이 75%, 개도국이 66%인하하는 시나리오하에서의 결과를 2015년의 APEC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 동태적 모형을 이용한다면 동태적 모형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을 시물레이션에 반영되도록 하면서 각 시간대별 관세인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선진국은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및 미국이 해당되고, 나머지 나라는 개도국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10가지 關稅引下 시나리오하에서 APEC 회원국과 역외국들의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하는데, 먼저 3가지 지역주의와 후생의 변화 패턴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각 지역주의 방법론하에서 관세인하의 폭이 높아짐에 따라 후생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관세인하의 폭이 높으면 높을수록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 일반균형시물레이션 模型과 母數

제Ⅱ章에서는 WTO의 관세인하와 APEC의 지역협정의 방법과 2010/2020년 APEC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WTO 이후 추가적인 APEC 무역자유화 조치를 위한 10가지 가상적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설명하였다. 1995년 1월에 출범한 WTO의 관세인하는 WTO 회원국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APEC의 관세인하전에 이행될 것으로 가정하고, 제Ⅳ章에서는 WTO 관세인하후에 APEC이 추가로 관세를 인하할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번 章에서는 이러한 관세인하조치의 경제적 효과 예측에 사용될 경제적 모형과 이 모형의 시물레이션에 사용될 母數(parameter)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모형에 따라 시물레이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각 경제의 특징이 반영된 母數도 시물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형설명에 앞서 모형에 사용될 국가와 각 국가의 산업분류를 설명하고, 일반균형 시물레이션모형에서 사용될 모수들을 논의하도록 한다. 따라서 시물레이션 결과는 실험에 사용된 模型과 母數에 근거하여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산업 및 국가 구분

〈表 5〉에서 보듯이, APEC의 무역자유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세계경제를 17개 지역(국가)으로 나누고, 각 지역경제는 13개 부문의 산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고, 세계무역, 생산, 소비 자료를 集計(aggregation)한 자료를 바탕으로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각 지역 경제는 한 개의 농업 부문(AGR), 광업부문 및 서비스 부문, 12개의 제조업 부문(MIN, TEXT, APPR, LPP, PCHM, PRST, N_FM, FBMT, TREQ, O_MC, O_MN)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산업

간 분류 및 결합은 각 산업에서의 생산구조상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세계경제는 <表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7개 지역경제로 나누어졌으며 그 중 15개 국가는 APEC 회원국이고 나머지 두 지역은 유럽연합(EU)과 기타 非APEC 국가(ROW)이다. APEC은 18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홍콩, 브루나이, 파푸아 뉴기니는 명시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다만, 홍콩은 내년부터 중국에 귀속될 것을 고려하여 중국과 한 지역으로 묶었고, 나머지 브루나이와 파푸아 뉴기니는 관련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APEC에서 이들 나라의 경제적 비중이 아주 낮으므로 시뮬레이션

<表 5> 산업 및 국가 구분

산	업	국	가
(1)	농업(AGR)	(1)	뉴질랜드(NZL) *
(2)	광업(MIN)	(2)	말레이시아(MYS) *
(3)	직물류(TEXT)	(3)	멕시코(MXC) *
(4)	의류(APPL)	(4)	미국(USA) *
(5)	종이 및 나무제품(LPP)	(5)	싱가포르(SGP) *
(6)	석유화학(PCHM)	(6)	인도네시아(IDN) *
(7)	철강산업(PRST)	(7)	일본(JPN) *
(8)	비철금속(N_FM)	(8)	중국/홍콩(CHK) *
(9)	금속제품(FBMT)	(9)	칠레(CHL) *
(10)	운송수단(TREQ)	(10)	캐나다(CAN) *
(11)	기계류(O_MC)	(11)	대만(TWN) *
(12)	기타 제조업(O_MN)	(12)	타일랜드(THA) *
(13)	서비스(SVC)	(13)	필리핀(PHL) *
		(14)	한국(ROK) *
		(15)	호주(AUS) *
		(16)	유럽연합(EU)
		(17)	기타 非APEC 국가(ROW)

*는 APEC 회원국임.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을 기타 非APEC 국가와 분리한 이유는 非APEC 국가중 유럽연합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Francois와 그의 동료(1995)들의 연구에서 제시된 유럽연합의 WTO 관세인하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가능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2. 一般均衡 시물레이션(CGE) 模型

지난 20년간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현상의 분석기법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과거에는 대형 메인 프레임 컴퓨터로 작은 개수의 변수와 수식으로 된 모형분석만 가능하던 일반균형 시물레이션 모형이, 오늘날에는 개인용 컴퓨터로도 한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복수의 경제를 대상으로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經濟模型과 마찬가지로 CGE 模型은 경제현상의 중요한 특성을 모형내에서 반영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경제 변수간의 연결고리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실 경제를 단순화시킨 컴퓨터코드화시킨 經濟模型이다. Shoven과 Whalley(1984)에 의하면, CGE 模型은 선진국과 후진국에서의 경제정책 변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GE 모형으로 경제현상을 분석하려는 연구자는 기존의 한 국가 CGE 模型을 복수 국가의 경제모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CGE 모형에 반영되도록 模型化 할 수 있다. 模型상의 각 경제에서 경제주체는 소비자, 생산자 및 정부이고 이들의 경제활동은 경제변수로 나타난다. 보통의 경우 基本模型도 쉽게 수정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模型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CGE 模型을 이용하면 적은 노력으로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적합한 模型으로 전환할 수 있다. CGE 模型

의 장점중의 하나는 각 경제 주체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기본 模型을 만들어 이를 실행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나머지 작업은 각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실행프로그램의 환경을 바꾸어주는 명령파일과 함께 단순히 실행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명령파일이란 실행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명령으로 구성된 파일이며, 그 중에서 일부는 실행프로그램의 환경구성을 정하는 명령들로 되어 있다. 이들 환경구성명령은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변수를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와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로 나누는 것에 관련되며, 각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정해진 변수의 구분은 시뮬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다음의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존의 변수구분과 관계없이 변수들을 나눌 수 있다. 각 시뮬레이션에서는 변수 숫자와 수식 숫자 차이에 해당하는 개수의 외생변수가 부여되어야만, 行列(matrix)이 완전 位數(rank)가 되는 일차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行列의 完全位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변수를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정책변수는 외생변수로 하되 수식을 참조하면서 외생변수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외생변수의 일부에 특정 값을 지정해 주는 것을 ‘모형에의 충격(shocks)’이라 하고,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충격의 크기와 충격의 대상을 바꿈으로써 다양한 정책변화를 모의실험(simulation)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는 부분균형 분석인 계량모형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는 최근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APEC의 관세인하와 같은 조치는 貿易障壁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 이로 인한 국제거래의 증가로 각 국가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자들은 생산단가를 더 낮추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Harberger(1964)의 부분균형 분석인 삼각계산(triangular calculation) 보다는 一般均衡模衡을 통해 GDP, 交易條件, 지역별·품목별 생산과 厚生水準의 변동과 같은 중요 거시 변수들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면서 예상되는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一般均衡模型 분석기법은 정책 변화에 따른 생산자 비용의 변동으로 인한 본원적 생산요소 상대가격이 모델 내에서 변동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생산비용 극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재와 본원적 생산요소 투입 간의 최적 비율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정책 변화가 중간재 투입물 상대가격 변동이 각각의 균형에서 생산요소의 부가가치와 중간재 구성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模型내에 고려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모든 가격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부분균형분석에는 생산요소가격이 항상 일정한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부분균형 분석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시장에서의 가격변동 상호작용을 모형내에서 동시에 고려된다는 점이다.

1970년대 말에서 1990년까지는 주로 한 나라 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경제분석을 하는 단일국가 一般均衡 시물레이션 模型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복수지역모형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점차로 세계경제분석 모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사용되는 模型은 경제정책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세계경제의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정태적(static) 模型으로서, 수량과 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왈라스적(Walrasian) 一般均衡模型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CGE 模型은 Johansen 시물레이션 방법론을 이어받은 개량된 선형 시물레이션 방법으로 解를 구할 수 있다. 이 模型의 2 가지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균형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제활동(生産, 輸入, 輸出 등)에도 순이익이 없다. 대부분의 자료는 이러한 초기 균형조건을 만족하지 않음으로 데이터를 조정(adjustment)하여 순이익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多부문, 多지역 模型으로의 정책변화가 각 지역의 厚生과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즉 각 지역의 생산, 수요, 균형가격, 본원적 생산요소 수익률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의 모든 경제 부문은 동시에 균형이 달성되어 있음

을 가정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일반균형 시뮬레이션 모형은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와 같은 구조적 정책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모형의 구조는 소비자의 효용이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수준에 의하여만 결정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鄭仁敎와 表鶴吉(1996)에 사용된 모형과 동일하다.²³⁾ 모형을 설명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시뮬레이션에서 각 시장에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시장균형조건을 논의한다. 그 다음에는 소비자의 최종수요와 생산자의 중간재 수요결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수입재화간의 수요를 결정하는 아밍톤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소비자의 소비구조와 생산자의 생산구조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정책변동을 시뮬레이션에 반영시키는 가격연관함수를 논의하도록 한다.

(1) 市場均衡(market clearing) 조건

시장균형조건은 각 시뮬레이션에서 모형에 포함된 시장이 항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수식체계이다.²⁴⁾ 대부분의 多국가 일반균형 시뮬레이션 모형은 요소시장, 상품시장,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알라스의 법칙(Walras' Law)을 이용하여 하나의 시장을 생략하게 됨으로 요소시장과 상품시장의 균형조건만을 논의한다.

첫째로, 각 지역의 노동과 자본에 대한 시장균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bar{l}_r = \sum_j l_r^j$$

23) 鄭仁敎와 表鶴吉(1996)의 모형에서는 소비 뿐 아니라 저축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4) 특별한 조건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장균형조건중의 일부를 해제시키기도 하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2) \bar{k}_r = \sum_j k_r^j$$

$\bar{l}_r(\bar{k}_r)$ 은 지역 r 에서의 노동(자본) 총공급을 나타내며, $l_r^j(k_r^j)$ 은 지역 r 에서 가동 중인 생산 부문 j 에 고용된 노동(자본)을 말한다. 수식 (1)과 (2)는 모든 본원적 生産要素인 노동과 자본이 생산부문에 모두 사용되어, 完全雇用을 달성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시장의 균형조건이 필요하다. 즉, 模型의 각 지역에서 국내 생산 재화 q_r^i 는 국내 사용(최종소비와 생산 중간재의 형태로)과 지역 r 의 i 상품 수출의 합과 일치해야 한다.

$$(3) q_r^i = d_{cr}^i + \sum_j d_{zr}^{ij} + \sum_s x_{sr}^i$$

x_{sr}^i 는 지역 r 에서 지역 s 로의 재화 i 의 수출을 나타낸다. 수식 우변의 첫번째 항목은 그 재화에 대한 최종 가계 소비수요이며, 가운데 항목은 모든 생산부문 간의 중간재 투입을 말한다. 마지막 항목은 상품 i 의 總輸出量이다. 수식 (3)에서 보듯이 지역 r 에서 생산된 재화 i 의 산출량은 국내 재화에 대한 최종 소비자 수요, d_{cr}^i , 중간재 투입의 합, $\sum_j d_{zr}^{ij}$ 과, 수출의 합, $\sum_s x_{sr}^i$ 으로 처분된다. 따라서 수식 (3)의 제약하에서는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입상품시장에 대한 시장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본 모형에서는 시물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의 최종 소비재와 중간재 수요를 단순화시켰다. 즉, 輸入品の 輸出國은 추적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형이 만들어졌다. 만약 국가별, 품목별로 신뢰할 만한 수입품에 대한 자료를 이용 가능하다면, 본 모형을 수정하여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수입품에 대한 시장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4) m_r^i = m_{cr}^i + \sum_j m_{zr}^{ij}$$

수식 (4)가 만족될 때, 전체 수입품 m_i^i 은 최종 소비재 m_{cr}^i 와 중간재 $\sum_j m_{ij}^i$ 로 사용되어, 이 模型에서 수입품 시장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2) 아밍톤의 구조

전통적인 국제경제 이론에서는 생산비 비교우위 이론으로 국제교역을 설명해 왔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단가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자국에서는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수입함으로써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상품(예를 들면, HS 코드상 같은 코드번호)으로 분류되는 재화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각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소수의 재화 생산에 전문화 할 것이며, 같은 재화의 국제간 교역은 현실 교역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같은 재화로 분류되는 상품들이 국가간에 서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있다. 즉, 한국은 자동차를 수출도 하지만 수입도 한다. 이는 헉스-올린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國際貿易理論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세계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은 比較優位國에서 比較劣位國으로의 일방통행식 수출이기보다는 동종의 상품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양방통행식 거래(intraindustry trade)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經濟模型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아밍톤(Armington (1969)) 가정이 필요하다. 아밍톤은 1969년 논문에서 제품은 비록 동일 상품으로 분류될지라도 원산지에 따라서 차별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자동차일지라도 한국산 현대차와 미국 포드차는 서로 다른 상품이며, 한국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입도 하지만, 아밍톤의 구조에서는 한국이 한국의 자동차라는 특정 상품을 수출하고 다른 상품인 미국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아밍톤의 구조(가정)이다. 아밍톤의 구조는 프로그램을 쉽게 할 뿐 아니라 模型이 均衡으로 수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고도로 集計된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는 양방간 교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아밍톤의 구조를

사용한다.

아밍톤 구조의 이러한 이점에 대하여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아밍톤의 구조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둘째, 오늘날 많은 제품은 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제품의 원자재 생산국과 조립국이 다른 경우가 많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원산지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모형이 완전경쟁일 경우 아밍톤의 구조를 가진 모형으로 예측이 하향평가될 수 있다. 최근들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두가지 방향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기업단위 상품차별화(firm-level product differentiation)인데, 상품은 생산지보다는 어느 회사제품인가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기업단위 상품차별화를 모형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제품분류에서 상품의 가치 수(상품의 다양성으로 표시되기도 함)가 모형내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Dixit과 Stiglitz(1977)의 효용함수²⁵⁾를 사용한다. 또 다른 접근은 챔버린(Chamberlin)의 독점적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독점적 경쟁에서는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R&D)비용을 모형에 첨가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용이 상품의 특성을 차별화시키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아밍톤의 구조는 없어도 동일 종류의 상품이 국제간에 쌍방통행식으로 거래되는 것을 모형화 할 수 있다.²⁶⁾ 그러나 본 연구에서 기업단위 제품차별화와 연구·개발비용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아밍톤의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이용한 모형의 시물레이션에는 아밍톤보다는 훨씬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5) 이들의 효용함수는 제품의 다양성이 효용지수의 결정인자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형태의 함수로 표시된다.

26) 아밍톤의 구조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heong (1995) 참조.

(3) 소비자 需要體系

각 지역은 그 지역의 厚生水準을 대표하는 대표 소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소비자 선호체계의 최상층에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需要函數가 사용되며 각 재화의 가상적인 “複合財貨 消費”(composite consumption)가 지역별 대표 소비자의 厚生水準을 결정하게 된다. 複合財貨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 선호체계의 최상층에서 최하층 수요 체계로 직접적으로 수요를 매칭(matching)시킬 경우, 컴퓨터의 연산 시스템이 혼동되어 解를 계산할 수 없게 됨으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간 계산 단계를 거치게 하기 위함이다. 콥-더글라스 함수의 특성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총지출 예산중에서 각 재화의 소비에 지출되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된다. 즉,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을 줄여서 그 재화의 소비에 지출된 금액을 소득 수준이 변하지 않는 한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뜻이다.

가계의 후생수준은 복합재화의 소비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복합재화는 國內財貨와 輸入財貨의 消費를 C.E.S. 함수로 集計한 것이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먼저 소득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厚生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복합재화 수요량이 정해지고 나면, 소비자는 각각의 복합재화 수요량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수입된 재화중에서 얼마만큼씩을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단계의 의사결정에서는 國內財와 輸入財에 대한 가격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콥-더글라스 厚生函數를 선형화시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5) u_r = \sum_i \delta_r^i * c_r^i, \text{ where } \sum_i \delta_r^i = 1.$$

δ_r^i 는 지역 r 의 소득에 대한 재화 i 에 대한 총지출 비율을 나타내고, u_r 는 지역 r 의 厚生變化率을, c_r^i 는 재화 i 에 대한 消費需要變化率을 나타낸다.²⁷⁾ 다시 말하자면, 그 지역의 厚生은 복합재화 소비의 가중평균

27) 이하 모든 변수는 변화율로 표시된다.

에 의해 결정된다. 후생지수변화율(u_r)의 구조를 보면, 소비자(즉 가계)는 소득이 변할 경우 소득 변화분의 일부를 저축하고 나머지를 재화 구매에 지출하기 때문에 어떠한 소득의 변화도 厚生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콕-더글라스 函數로 결정된 複合財貨 소비량을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수입된 재화중 어떤 비율로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소비자 의사결정이 된다. 이러한 국내 생산 재화와 輸入財貨의 최적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구조는 C.E.S. 함수를 사용한다. 앞에서 설명한 아밍톤의 가정을 이용한 複合재화 i 에 대한 소비 c_r^i 는 수식 (6)으로 표현된다.

$$(6) \quad c_r^i = \Psi \{d_{cr}^i \sigma_{c^i}^{i-1} \sigma_c^i + m_{cr}^i \sigma_{c^i}^{i-1} \sigma_c^i\} \sigma_c^i \sigma_{c^i}^{i-1}$$

σ_c^i 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i 와 輸入된 재화 i 간의 代替彈力性を 나타내며, Ψ 는 陽의 조절 계수이다. d_{cr}^i 는 지역 r 의 국내 재화 i 에 대한 소비 수요를 나타내며, m_{cr}^i 는 지역 r 의 輸入財貨 i 에 대한 소비수요를 나타낸다. 複合재화 價格指數의 이원성(duality)을 이용하여 수식(6)을 선형화 시키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輸入財貨의 C.E.S. 수요 공식은 수식 (7)과 (8)로 표현된다.

$$(7) \quad d_{cr}^i = c_r^i + \sigma_c^i \{p_r^{ci} - p_{cr}^{di}\}.$$

$$(8) \quad m_{cr}^i = c_r^i + \sigma_c^i \{p_r^{ci} - p_{cr}^{mi}\}.$$

여기서 윗 첨자 c 는 複合재화의 價格指數(composite price index)를, d 는 국내 생산재(가격)를, m 은 輸入財貨(가격)를 대표하며, 아래 첨자 $r(c)$ 는 지역(소비자)을 나타낸다. 수식 (7)과 (8)은 國內財貨 또는 輸入財貨의 가격 변화가 代替彈力性(σ_c^i)의 크기에 따라서 國內財와 輸入財에 대한 최종 소비량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關稅

引下는 수입가격을 하락시키며, 이로 인해 식 (8)에서 보여 주듯이 소비자는 輸入財貨의 소비를 증대시킬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는 代替彈力性의 크기이다. 정책 변화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각 재화에 대한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변동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代替彈力性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一般均衡 시뮬레이션 模型은 계량 경제학의 소비 패턴에 대한 시계열자료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代替彈力性 값을 사용할 수 있으나, 미국, 영국과 같은 一部 국가를 제외하고는 탄력성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임의의 수치를 사용하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됨으로 Norman (1990)이나 Mercenier(1995) 같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代替彈力性을 정하고 이것을 模型상의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이용하였다. 공통 代替彈力性 이용은 代替彈力性에 대한 정보 미비를 보완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模型이 새로운 均衡으로 수렴하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들의 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代替彈力性의 크기는 <表 6>에서 설명되었음). 만약 신뢰성 있는 代替彈力性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면 현재의 模型에서 각 지역별로 다른 수요 성향을 반영한 각기 다른 탄력성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4) 생산자 生産構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구조는 가능한 단순형태로 만들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모형화 할 수 있는 불완전 경쟁을 생산구조에 도입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모든 생산부문이 완전경쟁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完全競爭 기업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생산기술(constant returns to scale technology)로 생산활동을 영위한다.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의 조건인 가격과 限界生産費用이 일치하는 점

에서 생산 활동을 하며, 동시에 기업이 균형상태에 있다는 가정을 함으로 기업들은 總平均費用과 가격이 같아지게 되고 따라서 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기업은 노동과 자본의 본원적 생산요소²⁸⁾와 中間投入財를 제조원료로 사용한다. 노동과 자본 모두 각 지역 내에서는 산업간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나,²⁹⁾ 지역간에는 이동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재화와 서비스는 각 지역의 소비자에 의하여 최종소비재로 소비될 수 있고, 생산부문에서는 중간재로도 쓰인다. 본원적 생산요소는 C.E.S. 공식을 이용하여 集計되는 과정을 거쳐 附加價值(VA)가 된다. 소비자의 소비구조와는 달리, 생산구조의 맨 윗부분은 고정계수 생산방식인 레온티에프(Leontief) 生産函數를 사용하여, 附加價值와 複合中間財를 연결한다. 즉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附加價值와 일정량의 複合中間財가 투입되어야 한다. 複合中間財는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輸入財貨의 C.E.S. 함수로 集計 된다. 소비구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附加價值와 複合中間財는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가상적으로 고안된 개념이다.

생산구조의 최상부를 형성하는 레온티에프 生産函數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9) q_r^i = VA_r^i = z_r^{ii} = z_r^{2i} = \dots = z_r^{Ni}.$$

VA_r^i 는 지역 r 의 생산부문 i 에 필요한 부가가치 수요이며, z_r^{ji} 는 중간재 j 에 대한 지역 r 의 생산부문 i 에 의한 생산(q_r^j)을 위한 조건부 수요를 말한다. 수식 (9)는 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附加價值 1단위와 각

28) 농업 부문에서는 토지가 본원적 생산요소의 하나로 농산물 생산에 투입된다.

29) 후진국의 경우 본원적 생산요소의 완전 이동은 지나치게 강한 가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가정은 완화될 수 있으며 보통의 경우 완화되더라도 결과가 아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복합중간재 1단위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수식 (9)의 의미는 초기 균형 상태에서 생산물 1단위 생산에는 VA(1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음)만큼의 부가가치와 z^1, z^2, \dots, z^N 만큼의 複合中間材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수식 (9)에서 부가가치는 노동과 자본간의 C.E.S. 함수로 集計되었고, 이에 대한 수식은 본문에서 서술하지 않았다.

아래의 수식 (10)은 국내생산재화와 輸入財貨가 복합중간재로 集計되는 것을 나타내는 수식이다.

$$(10) z_r^j = \Phi \{ d_r^{j\sigma-1/\sigma} + m_r^{j\sigma-1/\sigma} \}^{\sigma/\sigma-1}$$

Φ 는 陽의 조절 계수이고, d 와 m 은 각국에서 생산된 국내재화와 수입 재화를 나타낸다. 國內財와 輸入財간의 代替彈力性은 수식 (6)과 비슷하나, 위 첨자와 아래 첨자는 편의상 생략하였다. 소비자 수요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국내 재화와 輸入財貨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다.

$$(11) d_{z_r}^j = z_r^j + \sigma \{ p_r^j - p_{z_r}^{dji} \}.$$

$$(12) m_{z_r}^j = z_r^j + \sigma \{ p_r^j - p_{z_r}^{mji} \}.$$

p_r^j 는 지역 r 에서 생산활동중인 기업 j 의 중간재 i 에 대한 價格指數를 나타내며, $p_{z_r}^{dji}(p_{z_r}^{mji})$ 는 지역 r 의 기업 j 가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輸入財) i 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다. σ 는 국내 생산 중간재와 輸入 中間財에 대한 기업의 代替彈力性을 나타낸다. 代替彈力性은 같은 중간재 투입 요소에 대해서 모든 지역이 같다는 것을 가정한다.

本 연구에서는 정태적 一般均衡 시뮬레이션 模型에 적용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지역별 투자함수를 이용하였다. 이 模型의 투자함수는 단순 정태적인 방법으로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되었는데, 多부문, 多지역 模型의 경우 동태적 CGE 模型을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태적인 경우에도 투자함수는 몇 가지 형태로 쉽게 변형될 수 있다. 그 첫번째는 세계자본시장규모(지역자본규모의 합)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자본의 비중이 模型의 시물레이션 과정에서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 지역의 자본형성과 투자를 일정한 비율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투자함수가 시물레이션 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두번째는 각 지역별로 투자가 조정되어, 지역의 자본 수익률을 지역간에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번째의 投資函數하에서는 각 지역의 투자가 模型의 시물레이션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投資函數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지역별 일정 투자비를 가정하에서 시물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模型은 자본재의 減價償却率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변동시킬 수 있다. 減價償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보통의 경우 자본재의 가치가 매년 10%씩 하락함을 가정하며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5) 價格聯關函數

價格聯關函數는 模型에서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이 租稅와 關稅 등의 정책변수와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여기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가격(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가격)과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政府補助金 지급과 같은 음의 租稅, 輸入·輸出과 관련된 정책변수들이 사용되지만, 연구 목적에 따라서는 부존자원의 변동과 인구증가율의 변동 등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변수들이 가격변수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輸入價格 p_{rs}^i 는 c.i.f. 가격 p_{rs}^{ci} 와 輸入關稅 t_{rs}^i 의 합이며, 輸出價格(f.o.b. 가격) p_{rs}^f 는 국내 시장 가격 p_r^{mi} 에서 輸出補助金 s_{rs}^i 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 p_{rs}^i = p_{rs}^{ci} + t_{rs}^i.$$

$$(14) p_{rs}^{\bar{i}} = p_r^{mi} - s_{rs}^i.$$

모든 변수들은 變化率의 형태로 표시되며, 아래 첨자 rs 는 “국가 r 로 부터 국가 s 로”를 나타내며, s_{rs}^i 가 음의 값일 경우 輸出稅(export tax)를 나타낸다. 수식 (13)과 (14)에 의하면, 소비자의 輸入需要와 생산자의 輸入中間財 수요의 국별 원천에 대한 계산 단계(sourcing by country)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재화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원천별(국가별) 輸入, 輸出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를 생략하는 대신 소비자와 생산자의 輸入財貨와 서비스 수요 계산에서 수식 (15)와 같은 복합 輸入價格指數 \bar{p}_r^i 를 사용한다.

$$(15) \bar{p}_r^i = \sum_s \xi_{sr}^i * p_{sr}^i$$

ξ_{sr}^i 는 지역 r 의 상품 i 輸入比率(지역 s 로부터)을 나타낸다. 여기서 앞의 수식에서의 아래 첨자 rs 와는 달리, 아래 첨자의 sr 로 표기된 것은 r 지역에서 입장에서 輸入品の 複合價格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수식 (15)의 복합 輸入價格指數는 다음의 두 식을 통해 소비자 가격 p_{cr}^{mi} (수식 (16))과 생산자 가격 p_{zr}^{mji} (수식 (17))로 전달된다.

$$(16) p_{cr}^{mi} = \bar{p}_r^i + t_{cr}^{mi}$$

$$(17) p_{zr}^{mji} = \bar{p}_r^i + t_{zr}^{mji}$$

$t_{cr}^{mi}(t_{zr}^{mji})$ 는 지역 r 에서 소비자(생산자)에게 부과된 재화 i 에 대한 국내 조세를 나타낸다. 輸入關稅引下는 수식 (13)에 의하여 輸入價格을 하락시킨다. 인하된 輸入價格은 수식 (15)를 통해 복합 輸入價格에 영향을 미친다. 수식 (16)과 (17)에 의하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낮아진 輸入價格

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게 되고, 수식 (8)와 (12)를 통하여 輸入需要가 증가하게 된다.

위의 두 함수와 비슷한 수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국내상품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과 국내 세금과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18) p_r^{ci} = p_r^{mi} + t_r^{ci}$$

$$(19) p_{fr}^{ji} = p_r^{mi} + t_r^{fi}$$

p_r^{ci} 는 지역 r 의 소비자가 국내 재화 i 소비를 위하여 지불하는 가격이고, p_{fr}^{ji} 는 지역 r 의 기업 j 가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내 재화 i 사용에 지불하는 가격이다. p_r^{mi} 는 지역 r 에서 생산된 재화 i 의 시장 거래가격이다. 나머지 두 변수는 최종 소비재와 중간재로 사용될 때 부과되는 국내 세금이다. 수식 (18)과 (19)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시장 거래 가격에 관련 조세를 합한 금액이 된다.

3. 模型의 母數設定

방정식 체계로 이루어진 模型의 解를 구하기 위해서는 代替彈力性 (elasticity of substitution)과 같은 母數(parameter)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C.G.E. 模型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선형 模型을 선형화시킨 것이므로 다른 模型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母數를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수는 각 국의 수입수요 함수의 수입수요 대체탄력성과 소비자의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간 아밍톤 대체탄력성 및 생산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간의 대체탄력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체탄력성들은 각국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수의 선

정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 모수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母數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계량경제학에 바탕을 둔 연구에서 필요한 母數의 크기를 선정하고, 선정된 母數가 연구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와 模型을 初期均衡狀態(benchmark equilibrium)로 만드는 과정인 母數設定(parameter calibr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母數의 값이 一部 혹은 전부 변하게 되고,³⁰⁾ 이렇게 조정된 값이 추후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된다. 母數의 크기는 연구 목적과 사용하는 模型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母數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유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크기가 다른 母數를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시뮬레이션 결과의 안정성(stability)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母數의 크기에 따라 解가 유의적으로 다르게 되면,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형을 수정해야 한다. 복수 국가 CGE 模型의 경우 각국의 母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一般均衡 시뮬레이션 模型이 발달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一部 국가를 제외하고는 각 상품별 代替彈力性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값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模型 내에 있는 각국의 需要函數에 동일한 탄력성 값을 부여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이 경우 각국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별로 주어진 탄력성의 값이 각국의 경제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값이 아닐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母數 선정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GTAP 母數를 사용한다. GTAP 母數는 Jomini와 그의 동료들(1991)의 SALTER 母數에서 주어진 각 상품의 價格彈力性을 상품별 원천별(source)로 集計(aggregation)방식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集計한 후 계산한 代替彈力性의 값이다. <表 6>은 이러한 GTAP 母數를 본 연구에 맞게 한번 더 集計한 값을 요약하고 있다.

30) 母數의 변화폭은 그다지 높지 않다.

〈表 6〉 품목별 代替彈力性

구 분	아밍톤 대체탄력성	수입상품의 원천별 탄력성	노동과 자본간 탄력성
농업	2.33	4.59	0.74
광업	2.80	5.60	1.12
직물류	2.20	4.40	1.26
의류	4.40	8.80	1.26
목재 및 종이	2.17	4.47	1.26
석유화학	1.90	3.80	1.26
철강	2.80	5.60	1.26
비철금속	2.80	5.60	1.26
금속제품	2.80	5.60	1.26
교통수단	5.20	10.40	1.26
기계류	2.80	5.60	1.26
기타 제조업	2.92	5.74	1.21
서비스	1.94	3.81	1.39

위의 〈表 6〉에서 13개 산업별로 각각 3종류의 代替彈力性은 각 국내 재화와 輸入財간(아밍톤 수요 체계)의 代替彈力性, 輸入商品의 원천별 탄력성, 노동과 자본의 代替彈力性을 나타내고 있다. 아밍톤 대체탄력성은 각 국가의 수입품과 국내재의 가격변동에 대한 消費수준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값이 클수록 더 민감함을 의미한다. 수입품간 가격탄력성은 각 원천별(특정 나라에서 수입된)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수요량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농업, 광업, 직물류, 종이, 철강, 비철금속, 기계류와 기타 제조업의 아밍톤 대체탄력성은 2.3 - 2.9이고, 석유화학과 서비스 산업은 이보다 약간 낮은 1.9, 자동차를 포함한 교통수단을 생산하는 산업의 아밍톤 대체탄력성은 5.2의 값이 부여되었다. 전반적으로 輸入商品의 원천별 탄력성은 아밍톤 대체탄력성 값의 2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타났는데 의도적으로 2배의 값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가중평균하여 集計한 결과이다. 즉, 소비자들은 같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같은 상품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품일지라도 국내재와 수입재 간의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는 수입품 상호간의 수요가 가격변화에 더 민감함을 의미한다. 노동과 자본간의 탄력성은 제조업의 경우 1.21 - 1.26, 서비스 산업은 1.39이나, 농업의 경우 0.74로 농업에 투하된 자원이 상대적으로 非彈力的인 것으로 되어 있어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IV. 시뮬레이션 結果의 해석 및 논의

제 II 장에서는 각국이 고위실무자회의에 제출한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의 일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열거한 개별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관세인하에 관한 한 UR에서 합의한 인하폭의 관세를 인하할 것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APEC 지역의 完全無稅化는 당분간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APEC 역내의 교역증진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完全無稅化는 아닐지라도 역내의 부분적인 관세인하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관세인하를 역외 국가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APEC의 기본 원칙중의 하나인 개방적 지역주의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APEC 역내에서 일정비율로 관세를 인하할 때의 경제적 효과를 제 III 장에서 설명한 일반균형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과 이 원칙이 실행되었을 때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APEC내의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역자유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조건부 지역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APEC만의 배타적 지역주의, 개방적 지역주의, 조건부 지역주의 및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 관세를 인하할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일반균형시뮬레이션 모형의 실행은 경제모형을 실행하게 하는 실행파일과 부속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3가지 지역주의 방안하에서 부분적 관세인하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관세인하의 인하율을 모형에 외생적으로 충격(shock)을 줄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이러한 외생적 충격은 텍스트 형태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한가지 파일이 만들어지면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다른 외생적 충격용 파일로 쓸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지역주의에는 10가

지의 관세인하 組合을 정의하였는데, 그 중 4가지 시나리오는 관세를 APEC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없이 동률로 인하하는 방식(33%, 50%, 66%, 75%인하)이고, 나머지 6 가지 시나리오는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높은 비율로 인하(50%-33%, 66%-33%, 75%-33%, 66%-50%, 75%-50%, 75%-66%)하는 것이다.

1. APEC의 배타적 관세인하

(1) 후생변화

〈表 7〉은 APEC 회원국들이 10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실행하였을 때 예상되는 지역별 후생지수(수식 5)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表 5〉에서 보았듯이, 이 연구에 분류된 17개 지역중 15지역(국가)은 APEC 회원국이고, 나머지 두 지역은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ROW)이다. 유럽연합을 기타 지역에서 따로 분리한 이유는 기타 지역에서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UR前과 UR後의 관세율변화(〈表 4〉)에 대한 정보가 Francois, McDonald와 Nordstorm (1995)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유럽연합을 ROW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유럽연합의 WTO 관세인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WTO 이후 APEC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함이다.

아래의 〈表 7〉이후의 表에서 첫째 行에 있는 숫자들은 관세인하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3333’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33% 관세를 인하한다는 뜻이고, ‘5033’은 선진국은 50%, 개도국은 33%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말한다. 즉, 4자리 숫자중 앞의 2자리는 선진국의 관세인하율이고, 나머지 2자리는 개도국의 관세인하율이다. 전반적으로 볼때 〈表 7〉은 관세인하의 폭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부분의 국가에서 후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없이 동일한 비율로 관세를 인

하할 경우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의 후생향상이 예상된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미국의 후생은 관세가 33%에서 75%로 인하될 경우 비교적 완만한 후생의 증진이 예측되는데 비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등의 동남아국가연합의 회원국과 한국, 대만의 경우 관세 인하 폭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히 큰 폭으로 후생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APEC 회원국중에서도 필리핀의 후생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33%에서 75%로 관세인하폭이 올라감에 따라 후생증가율은 2.06%에서 4.96%로 증가한다. 필리핀의 후생변화율을 미국 달러로 등가변환하면, 관세인하폭이 33%일 경우에는 9억 7천만달러, 75%만큼 인하되면 20억 8천만달러의 소득증가에 해당한다. 반면, APEC 국가중 캐나다는 APEC내의 관세인하로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0.00%에서 0.03%의 매우 낮은 후생변동이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33% 관세인하 시나리오에서는 0.81%의 후생증진이 예상되나, 관세인하율이 50%, 66%, 75%로 인상됨에 따라 각각 1.23%, 1.62%, 1.82%의 후생향상을 예상할 수 있다. 달러로 등가변환하여 한국의 후생증가를 표시하면, 22억 6천만달러(33%관세인하)에서 51억달러(75%관세인하)만큼의 소득증가에 해당하는 후생의 증진이 예상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를 다른 비율로 인하할 때 각국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동률인하와 비슷한 패턴(pattern)으로 후생변화가 예상되지만, 선진국보다 낮은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동률인하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후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진국이 66%만큼 관세를 인하하고 개도국이 관세를 33% 인하하는 6633 시나리오하에서 선진국인 일본은 0.46%, 개도국인 대만은 0.89%의 후생증진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 회원국이 관세를 66%인하하면, 일본은 0.48%의 후생증진이 기대되고, APEC 전 회원국이 33%인하할 때 대만은 0.73%의 후생이 증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관세로 왜곡된 자원배분이 관세가 인하됨에 따

〈表 7〉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후생변화율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0.24	0.35	0.44	0.48	0.33	0.39	0.42	0.42	0.45	0.47
말레이시아	1.17	1.85	2.54	2.94	1.17	1.17	1.18	1.86	1.86	2.55
멕시코	0.15	0.21	0.26	0.28	0.18	0.21	0.22	0.24	0.25	0.27
미국	0.11	0.15	0.18	0.19	0.15	0.18	0.19	0.18	0.19	0.19
싱가포르	0.30	0.47	0.64	0.73	0.40	0.50	0.57	0.57	0.64	0.70
인도네시아	0.20	0.29	0.34	0.37	0.23	0.26	0.28	0.31	0.33	0.36
일본	0.25	0.37	0.48	0.54	0.36	0.46	0.51	0.47	0.52	0.53
중국	0.54	0.77	0.94	1.01	0.62	0.71	0.75	0.85	0.90	0.99
칠레	0.11	0.13	0.12	0.11	0.13	0.16	0.17	0.15	0.17	0.14
캐나다	0.03	0.03	0.02	0.00	0.03	0.02	0.00	0.02	0.01	0.00
대만	0.73	1.12	1.48	1.67	0.81	0.89	0.94	1.21	1.26	1.54
타일랜드	1.20	1.74	2.18	2.40	1.24	1.27	1.29	1.77	1.79	2.20
필리핀	2.06	3.22	4.34	4.96	2.20	2.35	2.43	3.37	3.46	4.43
한국	0.81	1.23	1.62	1.82	0.85	0.89	0.91	1.27	1.29	1.64
호주	0.25	0.36	0.46	0.51	0.35	0.44	0.49	0.45	0.50	0.50
유럽	-0.00	-0.00	-0.01	-0.01	-0.00	-0.00	-0.00	-0.01	-0.01	-0.01
기타 지역	-0.04	-0.07	-0.08	-0.09	-0.06	-0.07	-0.07	-0.08	-0.08	-0.09

라 자원배분을 부분적으로 정상화시켜 후생이 증진될뿐 아니라, 自國보다 다른 회원국(선진국)이 더 높은 비율로 관세를 낮추게 되면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수출증가로 인한 개도국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소득증가는 이들 개도국들로 하여금 동율인하의 경우보다 더 높은 후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이 연구에서 非APEC 지역인 유럽연합과 유럽연합을 제외한 非APEC 지역인 기타 지역은 APEC의 회원국간 관세인하로 후생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후생감소는 APEC 국가만의 무역에 적용되는 인하된 관세로 APEC 역내무역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APEC 국가와 역외지역과의 교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節에서 다룰 개방적 지역주의

하에서는 非APEC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APEC 貿易轉換은 발생하지 않는다. APEC 지역의 관세인하로 유럽연합은 기타 지역보다는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하에서 유럽연합은 0.01%, 非APEC 지역은 0.04 - 0.09%의 후생감소가 예상된다.

이 연구에 사용된 15개 APEC 지역중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관세인하로부터 기대되는 후생변화율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캐나다의 후생변화율은 零보다는 큰 값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변화율이다.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비정상적인 후생변화율을 나타내는 경우를 일반균형 시뮬레이션 시스템내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후생변동의 원천(Welfare Decomposition)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생변동의 원천분석은 <表 7>에 나타나 있는 후생변동폭을 자원배분의 향상으로 생긴 효율향상과 교역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이익(혹은 손실)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여 최근에 발표된 CGE 기법이 여기에 해당된다.³¹⁾ 후생변동의 원천 분석을 위해서는 이 연구에 사용된 CGE 프로그램에 후생분석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실행파일을 하나로 묶어 동시에 돌리는 것이 필요함으로 컴퓨터 실행 파일의 크기가 이 연구에 사용된 CGE 프로그램보다 몇 배로 커지게 된다. 더구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처럼 13개 부문 17개 지역을 가진 데이터로 후생분석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후생의 원천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

후생변동원천 분석방법이 고안되기 이전에는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거시 변수들의 변동(예를 들면, 소득변화율, 물가수준, 임금 등)과 경제적 배경 등으로 후생변동을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낮은 후생변동은 소득수준이 줄어들거나 교역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인데, <表 8>에서는 지역별 소득변화율을, <表 9>에서는 물가지수 변동을 나타낸다. 아래

31) 후생분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ertel, Martin, Yanagishima, and Dimarana(1995) 참조.

에 있는 이들 表에서 주어진 거시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국의 후생변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소득변동과 물가지수

〈表 8〉과 〈表 9〉는 APEC이 배타적 지역주의를 취할 경우 10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하에서 예상되는 소득변화율과 물가지수 변화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물가와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시물레이션에서 계산되는 소득이 명목소득이기 때문인데, 소득변화율이 물가변화율보다 더

〈表 8〉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소득변화율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0.54	0.75	0.86	0.86	0.50	0.41	0.33	0.66	0.58	0.78
말레이시아	0.01	-0.06	-0.25	-0.45	-0.05	-0.06	-0.03	-0.06	-0.03	-0.21
멕시코	0.08	0.14	0.23	0.30	0.45	0.87	1.14	0.55	0.82	0.50
미국	-0.20	-0.33	-0.47	-0.56	-0.49	-0.78	-0.96	-0.63	-0.81	-0.65
싱가포르	1.73	2.72	3.76	4.40	1.99	2.27	2.44	3.00	3.17	3.93
인도네시아	0.19	0.22	0.19	0.15	0.56	0.96	1.22	0.61	0.87	0.44
일본	1.24	1.87	2.41	2.69	1.50	1.68	1.75	2.05	2.12	2.48
중국	0.58	0.75	0.83	0.85	1.17	1.75	2.08	1.31	1.64	1.15
칠레	-0.48	-0.75	-1.01	-1.14	-0.23	0.08	0.31	-0.44	-0.22	-0.79
캐나다	-0.64	-0.98	-1.29	-1.45	-1.08	-1.51	-1.77	-1.41	-1.67	-1.54
대만	1.52	2.23	2.79	3.02	2.28	3.07	3.54	3.02	3.50	3.27
타일랜드	-0.66	-1.56	-2.82	-3.71	-0.39	-0.17	-0.06	-1.34	-1.23	-2.71
필리핀	1.14	1.48	1.50	1.30	1.49	1.83	2.04	1.86	2.09	1.74
한국	0.90	1.21	1.32	1.28	1.27	1.61	1.80	1.55	1.74	1.51
호주	0.49	0.79	1.16	1.43	0.55	0.75	0.95	0.98	1.17	1.35
유럽	-0.51	-0.75	-0.96	-1.07	-0.65	-0.77	-0.84	-0.88	-0.94	-1.03
기타 지역	-0.56	-0.82	-1.04	-1.15	-0.71	-0.83	-0.89	-0.94	-1.00	-1.10

크다면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이된다. 실질소득의 증가는 각 지역의 대표적 소비자의 소비수준을 높이게 되고, 정상적인 선호체계³²⁾하에서는 소비증가가 후생향상으로 연결된다.

〈表 8〉에 의하면 APEC 국가중 말레이시아, 미국, 칠레, 캐나다 및 타일랜드의 명목소득은 한 가지 경우(‘3333’ 관세인하 시나리오하에서의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10가지 시나리오 전부에서 명목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하에서 관세인하폭이 커짐에 따라 명목소득의 감소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시에 관세를 33%만큼 인하하게 되면 명목소득이 0.64% 감소하게 되지만, 관세인하율이 75%로 증가하면 명목소득은 1.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관세인하율이 증가함에 따라 명목소득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싱가포르의 명목소득은 여기서 고려되는 APEC 15개 지역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75%의 관세인하가 실행될 경우 최고 4.4%의 명목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非APEC 지역인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의 명목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가만의 상호간에 관세인하는 역내국가간의 貿易創出과 역외국 기업이 직면하는 상대적으로 높게 된 관세로 인하여 생기는 貿易轉換效果 때문에, APEC의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非APEC 지역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물가지수는 〈表 9〉에 제시되어 있는데, 물가지수의 변화율은 명목소득변화율과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즉, 〈表 8〉에서는 APEC의 5개 지역의 명목소득이 감소하였으나, 〈表 9〉의 물가지수는 호주, 멕시코, 일본, 중국 및 대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0개 관세인하 시나리오 전체 혹은 일부에서 물가가 하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는 차별적인 관세인하(예를 들면, ‘6633’ 시나리오)하에서 물가가 다소 떨어지

32) 여기서 정상적인 선호체계라 함은 완전성(completeness), 이행성(transitivity), 연속성(continuity) 및 강단조성(strong monotonicity)의 4가지 속성을 지닌 후생함수를 말한다.

나 나머지 시나리오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멕시코와 중국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데 비하여, 각 시나리오하에서 일본의 물가는 매우 높은 폭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다른 APEC 지역에 비하여 낮은 캐나다의 후생증가는 <表 8>과 <表 9>에 있는 캐나다의 명목소득 변화율과 물가지수 변화율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表 8>에서 보여주는 캐나다의 명목소득 감소율은 <表 9>에서 제시된 물가하락률보다 더 낮게 됨으로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고려된 10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중 전부에서 캐나다는 실질소득의 감소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캐나

<表 9>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물가지수 변화율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0.19	0.24	0.23	0.19	0.07	-0.07	-0.16	0.10	0.01	0.14
말레이시아	-1.54	-2.52	-3.60	-4.31	-1.57	-1.56	-1.54	-2.51	-2.49	-3.58
멕시코	0.05	0.11	0.21	0.29	0.32	0.63	0.84	0.42	0.63	0.41
미국	-0.27	-0.42	-0.56	-0.64	-0.55	-0.82	-0.97	-0.69	-0.84	-0.72
싱가포르	-0.44	-0.70	-0.96	-1.12	-0.39	-0.33	-0.29	-0.64	-0.60	-0.92
인도네시아	-0.05	-0.11	-0.19	-0.25	0.21	0.51	0.71	0.18	0.38	0.00
일본	0.67	0.96	1.19	1.28	0.65	0.58	0.51	0.89	0.82	1.11
중국	0.09	0.11	0.12	0.14	0.48	0.85	1.06	0.47	0.68	0.32
칠레	-0.40	-0.59	-0.74	-0.80	-0.25	-0.04	0.11	-0.38	-0.23	-0.59
캐나다	-0.59	-0.89	-1.17	-1.31	-0.98	-1.36	-1.57	-1.27	-1.49	-1.38
대만	0.34	0.41	0.38	0.30	0.85	1.37	1.68	0.93	1.24	0.69
타일랜드	-0.89	-1.61	-2.48	-3.06	-0.73	-0.60	-0.55	-1.48	-1.42	-2.42
필리핀	-0.45	-0.92	-1.61	-2.13	-0.30	-0.15	-0.05	-0.76	-0.65	-1.50
한국	-0.16	-0.40	-0.79	-1.09	0.08	0.30	0.43	-0.18	-0.06	-0.66
호주	0.21	0.38	0.60	0.78	0.19	0.28	0.41	0.46	0.58	0.72
유럽	-0.48	-0.71	-0.91	-1.02	-0.61	-0.73	-0.79	-0.83	-0.89	-0.97
기타	-0.48	-0.71	-0.91	-1.00	-0.61	-0.72	-0.77	-0.82	-0.87	-0.96

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캐나다의 후생이 악화되지 않고 미약하나마 후생이 증진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것은 소비자들이 관세인하로 가격이 낮아진 상품을 관세인하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후생의 향상이 후생지수 계산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다.³³⁾

한국의 소득변화율과 물가지수 변화율은 캐나다와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APEC의 모든 국가가 同率로 관세를 33% 인하하면 한국의 명목소득은 0.9% 증가하지만 물가는 0.16% 하락하고, 66% 인하할 경우 소득은 1.32% 증가하고 물가는 0.79% 하락하게 되어 66% 관세인하시 실질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UR 관세인하에 대한 합의사항 실행이후 75%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66%인하할 때 명목소득이 더 높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낮은 비율(33%)로 관세를 인하하고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높은 50%, 66%, 75%의 비율로 관세를 내릴 경우, 한국의 명목소득은 1.27% 증가에서 1.80% 증가로 올라간다. 이 경우 <表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후생수준도 0.85%에서 0.91%로 향상된다. 그러나 선진국이 관세를 75% 인하하고 개도국이 관세를 50%와 66% 인하할 때 한국의 명목소득은 66% 인하시 보다는 50% 인하할 때 더 높게 증가한다. 어느 정책이 나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궁극적으로 후생의 변동이 일차적인 기준이 됨으로 두가지 시나리오하에서 예상되는 후생의 변동을 <表 7>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명목소득이 낮은 '7566' 시나리오하에서 한국의 후생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높은 비율의 관세인하가 한국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물가지수 변화율과 명목소득 변화율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면 쉽게 설명

33)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convex to the origin) 모양의 후생함수를 가정할 경우이고, 만약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선형 효용함수)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모양의 후생함수의 경우 한계 대체율이 遞減하게 되고, 이러한 함수가 선형함수보다는 더 보편적인 후생함수라 할 수 있다.

된다.

한국의 물가지수는 차별적 관세인하('5033', '6633', '7533'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관세를 33% 인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가지수가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同率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차별적인 관세인하의 경우라도 33%이상의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한국의 물가지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이 낮은 비율로 관세를 인하할 경우 물가가 약간 상승하는 것은 한국의 낮은 관세인하로 한국의 수입 물가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으나, 선진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인하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대되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증가는 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를 끌어 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33%의 관세를 인하하는 차별적인 관세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시나리오하에서 한국의 물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의 증가와 물가수준의 하락은 실질소득을 명목소득이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7550' 시나리오와 '7566' 시나리오하에서 물가수준의 변화율은 각각 -0.06과 -0.66으로, <表 8>에서의 '7566' 시나리오하의 명목소득 변화율(1.51%)보다 높은 '7550' 시나리오하의 높은 명목소득변화율(1.74%)을 실질소득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7566' 시나리오하에서 더 높게 된다. 따라서 <表 7>에서 '7566' 시나리오하에서의 후생변화율이 '7550' 시나리오하에서보다도 더 높게 되는 것이다.

(3) 무역수지

<表 10>은 앞에서 설명한 10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하에서 예상되는 무역수지 변동액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분류된 APEC의 15개 지역중 6개 국가(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칠레, 캐나다, 필리핀)는 관세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나머지 9개 국가(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대만, 타일랜드, 한국, 호주)들은 무역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非APEC 국가인 유럽과 기타 지역의 무역수지는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전환으로 인한 수출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는 9개 국가중 일본을 제외하면, 무역수지개선 예상액은 30억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도 6억 달러 이내의 추가적인 무역적자가 예상되어 무역수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본은 최고 132억 달러('7575' 시나리오)까지의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

<表 10>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무역수지 변동액 (단위 : 백만 달러)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57.5	87.9	114.8	128.2	74.3	88.6	95.7	102.8	110.2	122.5
말레이시아	47.0	68.0	77.4	70.0	-20.0	-73.1	-97.5	14.8	-9.7	53.0
멕시코	-26.1	-43.1	-58.0	-64.3	41.5	113.6	159.1	29.4	75.2	-12.0
미국	1232.0	1954.4	2713.4	3184.8	1368.6	1454.9	1488.4	2058.4	2102.2	2768.3
싱가포르	394.2	620.7	855.7	1000.6	390.1	384.2	380.5	614.7	610.7	851.4
인도네시아	-4.9	-33.7	-79.9	-114.7	9.4	27.4	40.4	-17.0	-4.8	-68.5
일본	5161.7	8213.1	11330.8	13185.7	7891.3	10653.5	12271.3	10969.6	12584.8	12944.3
중국	225.1	219.5	141.4	76.8	327.7	408.9	446.9	289.6	321.0	164.8
칠레	-4.0	-7.0	-8.1	-7.2	5.0	18.6	29.0	6.7	17.2	2.5
캐나다	-260.9	-391.8	-501.3	-549.7	-376.7	-496.3	-568.4	-508.6	-579.1	-569.9
대만	992.0	1535.5	2049.8	2328.5	1234.2	1476.4	1620.8	1780.4	1926.8	2197.1
타일랜드	266.1	289.6	220.8	135.6	222.4	162.7	120.5	230.9	189.1	179.2
필리핀	4.6	-8.6	-36.6	-61.9	6.9	8.3	8.9	-6.0	-4.7	-34.7
한국	486.7	668.2	767.5	777.5	427.2	347.3	291.3	588.0	531.9	711.4
호주	319.3	533.1	782.1	951.1	485.0	690.6	838.7	739.4	887.7	930.4
유럽	-5747.9	-8896.7	-11979.0	-13761.5	-7839.9	-9945.0	-11189.1	-11009.8	-12258.7	-13231.9
기타 지역	-3142.3	-4809.1	-6391.0	-7279.2	-4247.1	-5320.4	-5936.5	-5883.2	-6499.9	-7007.8

되어 기존의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와 함께 고려할 때, APEC의 관세인하가 일본의 무역수지흑자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同率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차별적인 관세인하보다 무역수지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同率關稅引下 시나리오하에서는 5억-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된다.

2. APEC의 개방적 관세인하

(1) 후생변화

다른 지역협정과는 달리 APEC은 관세인하의 혜택을 역외국에도 제공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였다. 이 節에서는 APEC 국가들이 APEC 국가 상호간 뿐만 아니라 역외국인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에도 인화된 관세를 적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후생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주로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추정된 후생변화율과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예상되는 후생변화율을 중심으로 비교하려고 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는 貿易轉換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APEC의 모든 국가가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보다 높은 후생수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는 역외국도 역내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는 높은 후생증진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일반균형시뮬레이션 모형에 문제가 있거나 데이터의 정확도와 균형(consistency) 등의 여러가지 문제로 시뮬레이션 解의 收斂(convergence)중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후생수준이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극히 부분적으

로 예외가 생기는 것은 모형과 시뮬레이션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뮬레이션에서의 변수간의 상호작용이나 변수간의 특정계약 때문에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시나리오하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국가간의 相互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경제구조가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어, 경제이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一部 국가는 특정조건이 지나치게 制約(constrained)됨으로써 이러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表 11〉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예측된 후생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후생변화율이 〈表 7〉에서의 후생변화율보다 높을 것

〈表 11〉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후생변화율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0.25	0.37	0.47	0.51	0.35	0.43	0.47	0.45	0.49	0.51
말레이시아	1.26	1.98	2.70	3.11	1.24	1.22	1.22	1.97	1.96	2.70
멕시코	0.16	0.23	0.29	0.32	0.18	0.20	0.21	0.25	0.26	0.30
미국	0.12	0.17	0.21	0.23	0.17	0.21	0.22	0.21	0.22	0.22
싱가포르	0.28	0.43	0.58	0.66	0.35	0.42	0.47	0.50	0.55	0.62
인도네시아	0.32	0.47	0.59	0.65	0.34	0.35	0.36	0.49	0.49	0.60
일본	0.27	0.40	0.52	0.58	0.40	0.51	0.56	0.51	0.57	0.57
중국	0.70	1.02	1.28	1.40	0.75	0.81	0.84	1.07	1.10	1.31
칠레	0.24	0.34	0.42	0.46	0.25	0.27	0.28	0.35	0.37	0.43
캐나다	0.05	0.06	0.07	0.06	0.06	0.06	0.06	0.07	0.06	0.06
대만	0.74	1.14	1.50	1.69	0.80	0.87	0.91	1.21	1.25	1.54
타일랜드	1.44	2.14	2.74	3.06	1.47	1.49	1.50	2.16	2.17	2.76
필리핀	2.21	3.44	4.64	5.30	2.29	2.37	2.41	3.53	3.59	4.69
한국	0.86	1.31	1.72	1.94	0.89	0.91	0.93	1.33	1.35	1.73
호주	0.27	0.40	0.51	0.56	0.39	0.49	0.55	0.50	0.56	0.56
유럽	0.00	0.00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지역	0.02	0.03	0.05	0.05	0.03	0.04	0.05	0.05	0.05	0.05

으로 나타나 경제모형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줌과 동시에 예측 결과가 경제이론과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개방적 지역주의의 10가지 쉰 시나리오하에서 예상되는 후생수준(〈表 11〉 참조)이 배타적 지역주의하의 관세인하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후생수준(〈表 7〉)보다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싱가포르는 10가지 시나리오 전부에서 예상과는 다른 후생변화율이 예측되고, 멕시코와 대만은 일부 관세인하 시나리오하에서 국제경제이론과는 대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결과중 멕시코와 대만은 두가지 지역주의(배타적, 개방적)하에서 이들 국가의 후생변화율의 차이가 거의 없고, 이러한 예상외의 결과도 10 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 중에서 극히 일부의 시나리오에서 발생함으로 여기서는 무시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³⁴⁾ 이들 3 국가중 싱가포르는 배타적 지역주의보다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낮은 후생수준이 예견되는데, 싱가포르는 APEC의 관세인하조치를 역외국가까지 확대할 경우 싱가포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非APEC 국가들도 APEC 역내 수출에 있어서 APEC 국가와 같은 관세율하에서 국제거래를 하게됨에 따라 싱가포르는 다른 APEC 국가와는 상반되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수출의 역내시장 의존도가 다른 역내국가에 비하여 아주 높은 점도 고려해볼 만하다. 여기서 관세율의 변화가 정책변수로 사용되고, 관세율의 변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수출이므로 각 시나리오하에서 예상되는 지역별 수출변화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表 12〉는 배타적 지역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관세를 인하할 경우 기대되는 지역별 전체 수출변화율이다. 먼저 개방적 지역주의에서는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소득증가분의 일부는 수입품의 소비에 지출하게 됨으로 APEC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34) 四捨五入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表 12〉 배타적 지역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국가별 수출변화율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배	1.20	1.94	2.72	3.12	1.81	2.45	2.85	2.59	2.99	3.12
	개	1.40	2.25	3.13	3.66	2.18	2.98	3.46	3.06	3.54	3.62
말레이시아	배	3.64	5.97	8.59	8.50	3.48	3.32	3.24	5.81	5.72	8.50
	개	3.90	6.30	8.91	10.59	3.60	3.33	3.18	6.02	5.86	8.75
멕시코	배	3.66	5.74	7.85	8.00	3.90	4.14	4.28	5.99	6.13	8.00
	개	3.87	6.04	8.21	9.48	3.92	3.98	4.02	6.10	6.14	8.26
미국	배	3.60	5.87	8.33	9.65	5.51	7.60	8.93	7.96	9.29	9.65
	개	4.55	7.28	10.15	11.91	7.04	9.66	11.27	9.89	11.50	11.75
싱가포르	배	0.76	1.18	1.60	1.58	0.75	0.73	0.72	1.16	1.14	1.58
	개	0.39	0.62	0.87	1.03	0.27	0.14	0.07	0.50	0.43	0.80
인도네시아	배	3.18	5.11	7.14	7.24	3.37	3.55	3.66	5.29	5.39	7.24
	개	3.90	6.23	8.67	10.17	3.92	3.95	3.97	6.26	6.28	8.69
일본	배	4.63	7.75	11.31	13.38	7.37	10.52	12.60	10.90	12.98	13.38
	개	4.68	7.71	11.11	13.32	7.53	10.74	12.83	10.92	13.01	13.20
중국	배	7.08	11.40	15.93	16.16	7.50	7.90	8.13	11.80	12.03	16.16
	개	7.62	12.11	16.77	19.61	7.82	8.02	8.13	12.32	12.44	16.90
칠레	배	1.74	2.88	4.13	4.19	1.81	1.90	1.97	2.97	3.03	4.19
	개	3.48	5.46	7.46	8.65	3.47	3.47	3.49	5.47	5.48	7.47
캐나다	배	0.90	1.47	2.09	2.43	1.42	1.96	2.29	2.02	2.35	2.43
	개	1.11	1.79	2.50	2.94	1.77	2.45	2.86	2.47	2.88	2.91
대만	배	4.82	7.85	11.25	11.49	5.19	5.53	5.71	8.22	8.42	11.49
	개	4.93	7.99	11.40	13.64	5.16	5.37	5.48	8.23	8.36	11.56
타일랜드	배	7.67	12.93	18.89	18.86	7.68	7.67	7.65	12.90	12.88	18.86
	개	9.31	15.17	21.55	25.59	9.16	9.02	8.93	15.02	14.93	21.46
필리핀	배	10.60	18.23	27.37	27.50	10.78	10.95	11.05	18.43	18.55	27.50
	개	12.05	20.20	29.64	35.95	11.93	11.83	11.77	20.11	20.06	29.60
한국	배	7.58	12.38	17.66	17.74	7.78	7.94	8.02	12.54	12.62	17.74
	개	8.63	13.87	19.48	23.03	8.64	8.63	8.61	13.85	13.84	19.46
호주	배	3.82	6.21	8.76	10.27	6.04	8.46	9.98	8.62	10.13	10.27
	개	4.46	7.11	9.84	11.51	7.03	9.70	11.34	9.77	11.41	11.47
유럽	배	-1.08	-1.64	-2.16	-2.36	-1.43	-1.78	-1.97	-1.99	-2.19	-2.36
	개	0.14	0.22	0.31	0.36	0.12	0.08	0.06	0.19	0.17	0.29
기타 지역	배	-0.52	-0.79	-1.03	-1.11	-0.68	-0.82	-0.90	-0.93	-1.01	-1.11
	개	-0.07	-0.12	-0.16	-0.19	-0.08	-0.10	-0.10	-0.13	-0.14	-0.17

註 : 배 - 배타적 지역주의

개 - 개방적 지역주의

이들 지역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APEC 국가의 對 域외국가 수출이 증가한다. 이러한 수출증가는 <表 12>에 나타나 있는데, <表 12>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개방적 지역주의하의 싱가포르의 수출은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보다 더 낮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非APEC 국가의 싱가포르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미약하거나 싱가포르의 수출품이 이들 非APEC 국가들의 수출품과 APEC 지역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다른 나라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의 수출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러한 현상은 개방적 지역주의에서만 일어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2) 소득변동과 물가지수

<表 13>은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지역별 명목소득 변동율을 나타낸다.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관세인하 시나리오중 대부분의 경우에서 명목소득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앞 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목소득 변화율과 후생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으므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고려한 실질소득 변화율을 살펴보아야 한다. 실질소득 분석전에 <表 13>과 <表 8>를 비교하면,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보다 더 많은 국가들의 명목소득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목소득이 하락하는 국가중 뉴질랜드,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국 및 호주는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국가들이다. 또한 싱가포르와 일본처럼 두가지 지역주의하에서 명목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던 국가들도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명목소득 증가율이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는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수준의 변화율에 대한 논의에서 보았듯이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의 후생수준이 배타적 지역주의에서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물가수준이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실질소득이 배타적 지역주의에서 보다는 더 높게 될 것이고, 이러한 실질소득의 증가가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와는 달리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非APEC 국가들의 명목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 13〉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소득변화율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0.21	-0.37	-0.58	-0.74	-0.55	-0.91	-1.14	-0.73	-0.96	-0.81
말레이시아	-0.61	-0.96	-1.36	-1.66	-0.79	-0.90	-0.93	-1.06	-1.09	-1.38
멕시코	-0.43	-0.62	-0.78	-0.86	-0.29	-0.10	0.03	-0.44	-0.32	-0.66
미국	-0.63	-0.96	-1.29	-1.47	-1.08	-1.53	-1.78	-1.41	-1.67	-1.55
싱가포르	0.95	1.54	2.18	2.60	1.08	1.22	1.32	1.68	1.78	2.28
인도네시아	-0.44	-0.74	-1.07	-1.29	-0.23	0.02	0.19	-0.49	-0.33	-0.91
일본	0.75	1.09	1.37	1.48	0.86	0.91	0.90	1.14	1.14	1.36
중국	-0.10	-0.23	-0.40	-0.51	0.28	0.65	0.87	0.14	0.35	-0.19
칠레	-1.04	-1.55	-2.00	-2.23	-0.86	-0.64	-0.48	-1.32	-1.17	-1.84
캐나다	-1.10	-1.66	-2.18	-2.46	-1.75	-2.39	-2.74	-2.29	-2.65	-2.54
대만	0.64	0.90	1.05	1.06	1.16	1.70	2.04	1.45	1.80	1.40
타일랜드	-1.31	-2.37	-3.64	-4.51	-1.19	-1.10	-1.05	-2.27	-2.23	-3.60
필리핀	0.39	0.43	0.23	-0.06	0.44	0.51	0.56	0.53	0.60	0.31
한국	0.30	0.32	0.22	0.07	0.49	0.68	0.79	0.51	0.62	0.32
호주	-0.19	-0.22	-0.16	-0.06	-0.38	-0.45	-0.39	-0.29	-0.24	-0.12
유럽	0.44	0.68	0.93	1.08	0.55	0.66	0.72	0.79	0.86	1.00
기타 지역	0.33	0.50	0.68	0.79	0.43	0.55	0.62	0.62	0.69	0.75

개방적 지역주의하의 물가수준 변화율은 <表 14>에 요약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관세인하 시나리오하에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3333'과 '5050'과 같은 일부 시나리오하에서 물가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인하폭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하락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후 국내가격이 관세인하폭만큼 바로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수식 (13) 참조). 여기서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국내 제품의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을 각 상품에 대한 소비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개방적 지역주의하의 물가인하율은 배타적 지역주의하의 물가인하율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방적 지역주의

<表 14>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물가지수변화율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0.40	-0.63	-0.88	-1.04	-0.76	-1.12	-1.33	-0.99	-1.20	-1.09
말레이시아	-2.06	-3.24	-4.48	-5.25	-2.13	-2.16	-2.16	-3.27	-3.27	-4.48
멕시코	-0.39	-0.56	-0.69	-0.74	-0.32	-0.22	-0.13	-0.46	-0.37	-0.61
미국	-0.65	-0.99	-1.31	-1.48	-1.09	-1.50	-1.74	-1.41	-1.64	-1.54
싱가포르	-0.88	-1.35	-1.80	-2.05	-0.88	-0.86	-0.85	-1.33	-1.32	-1.78
인도네시아	-0.60	-0.95	-1.29	-1.49	-0.45	-0.26	-0.14	-0.76	-0.64	-1.17
일본	0.16	0.19	0.16	0.11	0.00	-0.21	-0.36	-0.02	-0.17	0.01
중국	-0.53	-0.80	-1.05	-1.16	-0.29	-0.05	0.08	-0.57	-0.44	-0.92
칠레	-0.83	-1.23	-1.56	-1.72	-0.72	-0.56	-0.45	-1.07	-0.96	-1.45
캐나다	-1.01	-1.52	-1.99	-2.24	-1.60	-2.16	-2.48	-2.09	-2.40	-2.31
대만	-0.38	-0.67	-1.02	-1.27	-0.05	0.29	0.50	-0.32	-0.10	-0.80
타일랜드	-1.47	-2.40	-3.41	-4.05	-1.40	-1.35	-1.33	-2.35	-2.33	-3.39
필리핀	-1.08	-1.81	-2.68	-3.28	-1.12	-1.13	-1.13	-1.81	-1.80	-2.66
한국	-0.66	-1.13	-1.69	-2.07	-0.56	-0.45	-0.39	-1.03	-0.96	-1.63
호주	-0.37	-0.49	-0.53	-0.50	-0.62	-0.75	-0.75	-0.63	-0.63	-0.54
유럽	0.39	0.60	0.82	0.95	0.49	0.59	0.66	0.71	0.77	0.89
기타 지역	0.27	0.41	0.56	0.65	0.35	0.44	0.50	0.50	0.56	0.62

하에서 실질소득이 배타적지역주의에서 보다는 더 높게 된다. 예로써,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한국의 물가수준은 배타적 지역주의하의 물가보다 2배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실질소득도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기타 지역은 물가수준이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실질소득이 명목소득(〈表 13〉)보다 낮게 될 전망이다.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이들 지역은 자국의 관세는 변화시키지 않고 APEC 국가에게는 인하된 관세로 인하여 수출을 늘리게 됨으로써 〈表 13〉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소득증가는 수요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재화에 대한 가격상승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非APEC 지역인 유럽과 기타 지역이 APEC의 관세인하에 상응하는 크기의 관세를 인할 경우 이들 지역의 물가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 후생수준도 더 높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에 대한 실험결과를 다음 節에서 논의할 것이며,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는 실험결과를 제시하게 된다면 전세계 관세장벽제거 주장은 더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3) 무역수지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예상되는 무역수지도 배타적 지역주의에서와는 상당히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表 15〉와 〈表 10〉을 비교하여 보면, 15개 APEC 국가중 7개 국가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의 무역수지가 배타적 지역주의하의 무역수지 보다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중 중국과 같은 국가는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는 무역수지의 개선이 예상되었으나, 개방적 관세인하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또한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 국가들도 무역수지 개선폭은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는 비록 貿易轉換으로 인한 후생감소가 존재하더라도, 차별적인 관세로 역외

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면서 역내국 상호간의 교역을 늘리게 됨으로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보다는 무역수지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러나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역내국들은 역내보다 더 효율적인 생산자가 역외국에 있으면,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 경우 역외국은 역내의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됨으로 역내국과 같은 입장에서 역내에 수출을 하게 되는 반면, 역내국들은 역외국의 높은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수출을 늘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무역수지가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보다 더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表 15〉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지역별 무역수지변화율

(단위 : 백만 달러)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31.0	48.4	63.8	71.3	39.0	45.4	48.1	55.2	58.2	67.0
말레이시아	-86.4	-123.4	-160.2	-188.6	-185.6	-267.0	-306.9	-204.2	-243.7	-199.3
멕시코	-113.9	-174.2	-230.1	-260.3	-86.3	-54.2	-32.5	-141.4	-119.4	-207.7
미국	921.2	1499.4	2132.5	2537.8	1155.3	1358.4	1468.8	1711.7	1827.4	2253.9
싱가포르	285.8	453.6	631.1	742.5	257.9	230.4	214.8	425.5	409.5	614.6
인도네시아	-126.8	-215.2	-316.3	-381.7	-163.0	-194.0	-209.4	-246.3	-261.7	-331.8
일본	3628.7	5802.6	8039.6	9373.4	6033.0	8472.2	9902.9	8235.3	9662.6	9464.6
중국	-197.9	-380.2	-599.5	-733.5	-279.7	-373.2	-433.2	-476.4	-538.0	-663.8
칠레	-25.1	-35.9	-43.6	-46.4	-27.8	-26.7	-24.2	-34.7	-32.0	-40.8
캐나다	-406.4	-611.3	-791.9	-882.0	-581.3	-753.8	-854.4	-781.3	-880.5	-889.4
대만	666.1	1043.1	1407.1	1605.8	803.2	945.3	1033.3	1189.2	1279.8	1499.4
타일랜드	225.4	258.5	222.2	165.9	133.2	31.7	-32.3	159.7	97.2	161.0
필리핀	-38.9	-69.7	-110.5	-141.1	-54.1	-68.6	-76.6	-82.6	-89.6	-116.6
한국	166.9	201.1	178.5	128.8	0.6	-175.7	-283.7	26.2	-81.0	72.3
호주	252.0	425.6	632.4	775.1	400.3	584.2	716.6	610.0	742.4	764.7
유럽	-3319.4	-5200.3	-7081.1	-8184.8	-4877.6	-6481.8	-7446.1	-6809.9	-7777.6	-8051.6
기타 지역	-1862.2	-2922.0	-3974.1	-4581.9	-2567.0	-3272.6	-3685.2	-3635.8	-4053.3	-4396.1

개방적 지역주의를 취할 경우 일본은 10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하에서 100억 달러 이하의 무역수지개선이 기대된다. 미국도 최고 23억 달러만큼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 同率로 관세를 인하하면 약간 무역수지가 개선되나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른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면 경우에 따라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表 10>의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은 최고 132억 달러의 큰 폭의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되었는데,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도 여전히 무역수지악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액수가 예상된다.

(4) APEC과 개방적 지역주의

일반적으로 一部 국가간의 관세인하는 관련 국가의 후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³⁵⁾ APEC이 추구하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의 이러한 높은 후생수준은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발생하는 貿易轉換의 효과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는 없어지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후생향상 뿐만 아니라, 특히 수입품의 가격하락으로 전체 물가가 하락하게 되어 실질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기대되는 후생의 증가는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 모든 APEC 국가에서 더 높고, 非APEC 국가들의 厚生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할 경우 非APEC 국가들의 후생을 향상시키면서 APEC 회원국의 후생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계량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과 아울러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無賃乘車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지역협정과는 달리 APEC

35) 지역협정의 증가추세에 대해서는 WTO(1995) 참조.

이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는 APEC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역외국가에게도 동일한 관세인하혜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WTO의 MFN 원칙을 지키게 됨으로써 APEC은 地域主義를 통한 세계교역자유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Young과 Huff(1995)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즉, Young과 Huff의 연구에서는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는 낮은 후생이 예상되어 결국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비슷한 CGE 모형³⁶⁾과 같은 데이터베이스³⁷⁾를 사용한 두 연구에서 나온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연구간에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Young과 Huff(1995)의 연구는 APEC이 관세를 100% 인하하는 경우에 배타적 지역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는 WTO 이후 관세를 10가지 인하비율로 인하할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예측한 것이다. 즉, Young과 Huff는 APEC 관세인하에 WTO하에서 인하될 관세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관세인하의 폭이 지나치게 크게 정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WTO 관세인하이후의 경제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데이터가 APEC 관세인하 시뮬레이션에서 오류(error)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폭 줄였다. 따라서 두 연구간에 상반된 결과에 대한 이유중의 하나는 Young과 Huff의 연구에서 외생변수인 관세율에 충격을 주기위하여 사용된 과도한 관세인하폭으로 시뮬레이션 도중 데이터 전체의 체제가 원래의 모습과는 상당히 변경되어 비정상적인 결과가 생산되어졌을 가능성이 있

36) 개인 소비함수에 있어 Young과 Huff(1995)는 CDE(Constant Difference Elasticity) 수요체계를 사용하였으나,拙著에서는 C-D(Cobb-Douglas) 함수를 사용한 점을 제외하고는 모형의 나머지 구조는 거의 같다.

37) 두 연구에서 공히 GTAP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했으나, Young과 Huff는 1993년도 GTAP 데이터(version 1)를,拙著는 1996년판 데이터(version 2)를 사용하였다.

다.

한편 무역자유화로 인한 후생수준 결정에 있어서 交易條件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면 해당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증가는 수출품 가격의 하락을 동반하게 되고 따라서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관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관세만큼 수입가격이 인상되기 보다는 수출업자의 수출가격하락으로 관세의 일부는 흡수된다. 반대로 관세가 인하되면 역외국 수출업자는 수출가격을 약간 인상하게 되고, 만약 APEC 국가들의 수출가격에는 변동이 없다면 APEC 국가들의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Young과 Huff의 연구에서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는 APEC 국가들이 교역조건 악화로부터 오는 후생악화가 貿易轉換의 제거로 생기는 후생향상을 능가하였고, APEC 국가들은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후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本 연구에서도 교역조건이 악화되기는 하지만, Young과 Huff의 결과와는 반대로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생기는 교역조건 악화보다는 완화되는 무역전환으로 인한 후생증진이 더 크게 되어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후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건부 관세인하

앞 節에서는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실행할 경우 예상되는 후생의 변화, 소득과 물가수준 및 무역수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節에서는 APEC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계교역자유화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인 조건부 지역주의를 택할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건부 관세인하는 非APEC 국가들이 APEC과 같은 크기의 관세를 인하할 경우에만 APEC의 인화된 관세 혜택을 볼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PEC 주도하에 전세계가 관세를 인하하게 되고, GATT 제 2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地域協定이 세

계교역자유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세계 모든 국가가 관세를 인하하고 모든 국가에게 낮아진 관세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배타적 지역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 보다는 더 크게 후생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조건부 지역주의 하에서는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 더 큰 貿易創出 기회가 생기게 되고, 조건부 지역주의하에서는 非APEC 국가들도 APEC 국가와 같은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非APEC 지역의 높은 관세로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 보다는 APEC 국가들의 對역외국 수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PEC이 조건부 지역주의를 역외국에 제시하더라도 역외국이 APEC의 제의에 따라 관세를 인하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류된 2개의 역외국가(유럽연합, 기타 지역)중 어느 한 지역만이 APEC의 조건부 관세인하에 동참한다는 가정하에서 예측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1) 유럽연합의 관세인하

이 연구에서 조건부 관세인하는 2개의 非APEC 지역중 한 지역이 APEC의 관세인하와 동일한 크기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가정하고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表 16>은 APEC이 조건부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유럽연합만이 APEC의 관세인하제의에 동참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예상되는 후생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이 APEC의 낮아진 관세인하혜택을 보기 위하여 관세인하를 실시하게 되면(기타 지역의 관세는 변동없음), APEC 전 회원국들은 후생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는 배타적 지역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에서 보다도 더 높은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역외국가중 관세를 인하하는 유럽연합은 상당한 후생증진이 기대되는 반면, 관세변동이 없는 기타 지역의 후생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방적 지역주의(〈表 11〉)와 유럽 연합만이 관세인하하는 경우(〈表 16〉)를 비교하면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APEC 국가들은 유럽이 APEC의 관세인하에 동참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후생이 기대되며 특히 싱가포르의 후생향상은 주목을 받을만하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비록 후생이 향상되기는하지만) 후생수준이 예상된다. 앞 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싱가포르는 예상과는 달리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는 낮은 후생수준이 예견되었고, APEC이 아무런 조건없이 인하된 무역장벽을 역외국에 제공하게 되면 싱가포르는 국제교역에

〈表 16〉 APEC과 유럽연합의 관세인하의 후생효과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0.37	0.57	0.77	0.88	0.55	0.73	0.84	0.75	0.86	0.88
말레이시아	1.30	2.06	2.84	3.29	1.36	1.42	1.46	2.13	2.17	2.89
멕시코	0.16	0.24	0.29	0.32	0.19	0.22	0.24	0.26	0.28	0.31
미국	0.11	0.15	0.19	0.20	0.15	0.19	0.20	0.19	0.20	0.20
싱가포르	0.48	0.75	1.00	1.15	0.67	0.86	0.98	0.93	1.05	1.11
인도네시아	0.39	0.57	0.73	0.80	0.45	0.52	0.56	0.64	0.67	0.76
일본	0.33	0.49	0.64	0.72	0.49	0.63	0.70	0.64	0.71	0.72
중국	0.81	1.18	1.48	1.61	0.92	1.04	1.11	1.29	1.36	1.54
칠레	0.19	0.27	0.32	0.34	0.24	0.30	0.33	0.32	0.35	0.35
캐나다	0.04	0.04	0.04	0.03	0.04	0.03	0.03	0.04	0.03	0.03
타이완	0.76	1.17	1.54	1.73	0.84	0.92	0.97	1.25	1.30	1.59
타일랜드	1.38	2.03	2.58	2.86	1.44	1.50	1.53	2.09	2.12	2.62
필리핀	2.35	3.68	4.96	5.67	2.55	2.74	2.85	3.88	4.01	5.09
한국	0.90	1.36	1.79	2.02	0.95	1.01	1.04	1.42	1.45	1.82
호주	0.27	0.39	0.50	0.55	0.38	0.48	0.53	0.49	0.54	0.55
유럽	0.06	0.08	0.10	0.10	0.08	0.08	0.08	0.09	0.09	0.09
기타	-0.09	-0.13	-0.17	-0.19	-0.12	-0.15	-0.17	-0.16	-0.18	-0.18

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APEC의 관세인하만큼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개방적 지역주의에서 예상되는 후생향상보다도 최소한 30%이상 더 높은 후생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서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품들이 유럽연합국의 시장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개방적 지역주의보다는 조건부 지역주의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AFTA의 세 회원국중 멕시코는 개방적 지역주의와 유럽연합의 관세인하 사이에 그다지 큰 후생변화가 예상되지 않으나, 미국과 캐나다는 유럽연합이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후생의 하락이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APEC의 관세인하에 상응하는 크기의 관세를 인하할 때 미국과 캐나다의 후생이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도 더 낮아지는 것을 설명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다만, 兩 지역주의 방안의 다른 점은 유럽이 관세를 인하하였다는 점이므로 관세인하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과 수입 변동과 교역조건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PEC이 유럽연합에 대하여 개방적 지역주의를 취하고 여기에다가 유럽연합의 관세인하는 APEC 국가들에게는 최소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表 17>은 개방적 지역주의와 유럽연합이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출, 수입 및 교역조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이 관세인하를 하는 경우 멕시코와 유럽연합은 수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나, 미국과 캐나다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도 수출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국의 수입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교역조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고, 유럽연합은 교역조건의 악화가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관세인하시 미국과 캐나다의 교역조건이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 더 개선됨으로 교역조건은 이들 나라의 후생악화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반면에,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증가와 수출감소가 이들 국가의 상대적으로 낮은 후생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17>은 유럽연합의 관세인하로

부터 생기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유럽연합이 차지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유럽연합은 0.12%와 1.27%의 수출과 수입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유럽연합의 관세인하시에는 각각 3.71%와 4.10%의 큰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수출증가는 <表 1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후생증가로 연결된다.

<表 17> NAFTA와 유럽연합의 輸出·輸入 및 교역조건 변화율

(단위 : %)

	수 출		수 입		교역조건	
	개방	유럽	개방	유럽	개방	유럽
멕시코	3.92	8.16	3.65	3.87	-0.21	0.07
미국	7.04	6.53	5.60	5.64	-1.10	-0.65
캐나다	1.77	1.70	1.30	1.43	-1.04	-0.79
유럽연합	0.12	3.71	1.27	4.10	0.51	-0.34

註 : 1. “5033” 관세인하하에서의 예상치임.

2. “개방”: 개방적 지역주의,

“유럽”: 유럽이 APEC의 관세인하에 동참하는 경우.

(2) 기타 지역의 관세인하

앞에서는 유럽연합이 APEC의 관세인하만큼의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후생지수의 변동을 논의하였고, 지금부터는 기타 지역이 관세를 인하할 때 예상되는 후생변동을 살펴본다. 앞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WTO後 관세율에 10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크기의 관세인하 충격을 주었으나, 이번 경우에는 유럽지역의 WTO後 관세율은 변동시키지 않고 기타 지역의 관세율을 APEC의 관세인하만큼 인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중 후생지수 변화율이 <表 18>에 요약되어 있다.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후생지수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表 11>과 기타 지역만이 APEC 관세인하에 동참하는 경우하의 후생지수인 <表

〈表 18〉 APEC과 기타 지역 관세인하의 후생효과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0.31	0.47	0.60	0.67	0.40	0.47	0.49	0.53	0.56	0.63
말레이시아	1.28	2.01	2.74	3.16	1.26	1.25	1.25	2.00	2.00	2.74
멕시코	0.16	0.23	0.29	0.32	0.19	0.21	0.22	0.26	0.27	0.30
미국	0.12	0.17	0.21	0.23	0.17	0.20	0.21	0.21	0.22	0.22
싱가포르	0.42	0.68	0.98	1.17	0.49	0.57	0.62	0.76	0.81	1.02
인도네시아	0.24	0.35	0.43	0.48	0.26	0.28	0.29	0.36	0.38	0.44
일본	0.25	0.38	0.49	0.55	0.37	0.47	0.52	0.48	0.53	0.54
중국	0.54	0.78	0.96	1.03	0.60	0.66	0.70	0.84	0.87	0.99
칠레	0.24	0.33	0.40	0.43	0.25	0.27	0.28	0.35	0.36	0.41
캐나다	0.04	0.05	0.04	0.03	0.04	0.04	0.03	0.04	0.03	0.03
타이완	0.72	1.12	1.48	1.67	0.79	0.87	0.92	1.20	1.25	1.54
타일랜드	1.37	2.00	2.54	2.81	1.39	1.42	1.43	2.03	2.04	2.56
필리핀	2.03	3.16	4.25	4.85	2.12	2.20	2.25	3.26	3.32	4.32
한국	0.88	1.34	1.76	1.99	0.91	0.94	0.96	1.37	1.38	1.78
호주	0.28	0.41	0.53	0.59	0.39	0.48	0.53	0.50	0.55	0.58
유럽연합	-0.03	-0.04	-0.05	-0.05	-0.03	-0.03	-0.03	-0.04	-0.04	-0.05
기타 지역	0.27	0.38	0.45	0.48	0.29	0.30	0.30	0.39	0.40	0.46

18)을 비교하면, 기타 지역이 APEC 관세인하에 동참하는 경우 APEC 국가들중 많은 나라의 후생이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³⁸⁾ 즉,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 중국은 기타 지역이 관세인하를 할 경우 후생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表 19〉는 기타 지역이 관세인하에 동참할 때 이들 개도국들의 후생지수가 감소하는 이유를 이 연구에서 사용된 CGE 모형이 다른 변수에 대하여 예측한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준비하였

38) 모든 APEC 회원국의 후생은 향상되지만, 기타 지역이 APEC 관세인하에 동참하는 경우에 후생이 향상되는 비율이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예상되는 후생변화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이다.

다. <表 19>는 개방적 지역주의와 기타 지역이 관세를 인하하는 두가지 경우하에서 관세를 '5033' 시나리오에서와³⁹⁾ 같이 인하할 때 예상되는 수출, 수입, 교역조건, 명목소득 및 물가지수의 예상변화율을 나타낸다.

기타 지역이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17개 지역중 11개 지역에서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수입은 15개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양의 貿易創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PEC 15개 지역중 타일랜드를 제외한 전 지역의 交易條件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타일랜드의 후생악화는 교역조건 악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다른 개도국의 후생악화는 수출, 수입과 교역조건이 모두 후생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변동할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의 움직임으로는 후생악화를 설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이유를 연구하기 위하여 명목소득과 물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表 19>의 오른쪽 4칸에 있는 숫자를 비교하여 보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질소득의 감소는 소비수준의 하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소비수준의 하락은 후생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기타 지역이 관세를 인하할 때 중국은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후생악화에 대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다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수와 각 지역내 산업수를 줄여서 여기에 사용된 CGE 모형과 후생변동의 원천분석을 위한 프로그램과 동시에 실행하게 되면 중국의 후생변동에 대한 이유를 보다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表 19>에 따르면 기타 지역의 관세인하는 수출과 수입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뿐 아니라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PEC 관세인하에 동참하지 않는 유럽연합은 기타 지역과는 반대로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고 실질소득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관세인하에 대한 후생의 악화가 예상된다. 한편, 두 지역의 교역조건은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39) 10개 관세인하 시나리오하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表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나 지면상 생략한다.

〈表 19〉는 10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중 ‘5033’ 시나리오하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정리한 것이지만, 다른 시나리오하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表 19〉 APEC과 기타 지역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

(단위 : %)

	후생수준		수출		수입		교역조건		명목소득		물가	
	개방	기타	개방	기타	개방	기타	개방	기타	개방	기타	개방	기타
뉴질랜드	0.35	0.40	2.18	2.44	1.85	2.82	-0.28	0.82	-0.55	0.93	-0.76	0.34
말레이시아	1.24	1.26	3.60	4.01	3.06	3.74	-1.36	-0.70	-0.79	0.35	-2.13	-1.47
멕시코	0.18	0.19	3.92	4.06	3.65	3.92	-0.21	0.13	-0.29	0.37	-0.32	0.26
미국	0.17	0.17	7.04	6.94	5.60	6.02	-1.10	-0.39	-1.08	-0.32	-1.09	-0.41
싱가포르	0.35	0.49	0.27	1.08	0.50	1.54	0.51	1.32	1.08	3.75	-0.88	0.03
인도네시아	0.34	0.26	3.92	4.07	4.64	5.32	-0.57	0.54	-0.23	0.76	-0.45	0.33
일본	0.40	0.37	7.53	7.85	8.88	10.15	0.82	1.84	0.86	1.99	0.00	1.10
중국	0.75	0.60	7.82	7.94	6.68	7.13	-0.63	0.1	0.28	1.22	-0.29	0.57
칠레	0.25	0.25	3.47	3.90	3.55	4.37	-0.92	-0.20	-0.86	-0.05	-0.72	-0.18
캐나다	0.06	0.04	1.77	1.60	1.30	1.35	-1.04	-0.68	-1.75	-1.08	-1.60	-0.98
타이완	0.80	0.79	5.16	5.21	5.25	5.57	0.23	0.84	1.16	2.27	-0.05	0.89
타일랜드	1.47	1.39	9.16	9.05	6.44	6.86	-2.77	-1.80	-1.19	0.06	-1.40	-0.53
필리핀	2.29	2.12	11.93	11.47	8.94	8.85	-1.89	-1.41	0.44	1.02	-1.12	-0.56
한국	0.89	0.91	8.64	9.30	7.35	8.44	-0.65	0.53	0.49	2.21	-0.56	0.81
호주	0.39	0.39	7.03	6.69	6.15	6.47	-0.36	0.52	-0.86	0.72	-0.62	0.31
유럽연합	0.00	-0.03	0.12	-3.20	1.27	-2.55	0.51	-1.17	0.55	-1.39	0.49	-1.24
기타 지역	0.03	0.29	-0.08	4.73	0.39	4.61	0.24	-0.08	0.43	-0.29	0.35	-0.58

註 : 1. “5033” 관세인하하에서의 예상치임.

2. “개방”: 개방적 지역주의,

“기타”: 기타 지역 APEC의 관세인하에 동참하는 경우.

조건부 지역주의하에서 한 지역만이 APEC 관세인하에 동참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출과 수입의 변동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의 17개 지역중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이 기술수준

면에서 첨단제품(high technology products)을 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기타 APEC 회원국들은 이들 나라들로부터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APEC의 관세인하에 동참하게 되면 미국 및 캐나다는 아시아의 APEC 국가에서 비슷한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는 수출상품을 중심으로 경쟁하게 되고 미국과 캐나다는 <表 17>에서 수출의 감소로 나타났다. 한편, 이 節에서 기타 지역으로 정의된 지역은 南美, 印度와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과 저개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수출제품은 동남아시아 연합 회원국과 중국등의 수출품과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表 19>에서 대부분의 APEC 개도국들의 수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APEC의 대부분 국가의 輸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PEC 개도국들은 기타 지역과의 경쟁으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기타 지역의 소득증가로 기타 지역의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APEC 개도국들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전세계 교역자유화

(1) 후생변화

<表 20>은 전세계가 관세를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후생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지역주의하에서 기대되는 후생수준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일한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전세계 교역자유화에서 예상되는 지역별 후생수준은 10개 관세인하 시나리오와 전세계를 분류한 17개 지역중 대부분의 경우 <表 11>에서 보여주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다. 다만 10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중 3개 시나리오('3333', '5050', '7575')하에서 대만은 전세계 교역

자유화와 개방적 지역주의에서 비슷한 수준의 후생향상이 기대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세계 교역자유화가 개방적 지역주의보다 더 큰 후생의 향상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表 11〉과 〈表 20〉를 비교할 때, 이 연구에 사용된 APEC의 15개 지역중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를 가장 큰 비율의 후생증가가 예상된다. 개방적 지역주의의 ‘6666’ 시나리오하에서 싱가포르는 0.58%의 후생증가 예상되나, 모든 국가가 같은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는 전세계 교역자유화에서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2배에 해당하는 1.16%의 후생향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두가지 지역주의하

〈表 20〉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의 지역별 후생변화율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0.38	0.58	0.76	0.87	0.54	0.68	0.77	0.73	0.81	0.86
말레이시아	1.35	2.11	2.87	3.31	1.38	1.40	1.41	2.17	2.18	2.94
멕시코	0.18	0.26	0.33	0.36	0.21	0.23	0.25	0.29	0.30	0.35
미국	0.12	0.17	0.21	0.23	0.18	0.22	0.23	0.22	0.24	0.24
싱가포르	0.53	0.84	1.16	1.36	0.69	0.84	0.93	1.01	1.10	1.28
인도네시아	0.37	0.55	0.70	0.77	0.41	0.45	0.47	0.59	0.61	0.72
일본	0.32	0.49	0.65	0.73	0.50	0.65	0.72	0.66	0.73	0.74
중국	0.74	1.07	1.35	1.47	0.83	0.90	0.95	1.17	1.21	1.41
칠레	0.30	0.44	0.56	0.61	0.34	0.37	0.39	0.48	0.50	0.58
캐나다	0.05	0.07	0.07	0.07	0.06	0.06	0.06	0.07	0.06	0.07
대만	0.73	1.13	1.50	1.68	0.82	0.89	0.94	1.23	1.28	1.57
타일랜드	1.50	2.22	2.85	3.17	1.55	1.58	1.59	2.27	2.29	2.90
필리핀	2.25	3.50	4.69	5.35	2.36	2.46	2.53	3.61	3.68	4.76
한국	0.93	1.41	1.85	2.09	0.99	1.03	1.06	1.48	1.50	1.91
호주	0.28	0.41	0.53	0.59	0.40	0.50	0.56	0.52	0.57	0.59
유럽	0.05	0.06	0.06	0.06	0.08	0.10	0.10	0.08	0.09	0.07
기타 지역	0.33	0.47	0.59	0.64	0.35	0.37	0.39	0.50	0.51	0.61

에서의 후생변화의 차이는 약 10%이내로 그리 높지 않다.

개방적 지역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도 후생의 향상이 기대되는데,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 유럽연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타 지역은 개방적 지역주의에서 보다 훨씬 높은 후생증가율이 기대된다.

또한 전세계 모든 국가의 관세인하로 모든 국가의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세계 교역 자유화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完全無關稅化가 아닌 부분 관세인하로도 모든 국가가 이익을 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관세인하는 관련된 국가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 예상된다. 鄭仁敎와 表鶴吉(1996)의 연구는 UR에서 합의한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서, 이 연구에서와 같이 UR 관세인하가 WTO 회원국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는 UR 이후의 새로운 관세인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소득과 물가수준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는 개방적 지역주의에서의 관세인하에 추가로 非APEC 국가의 관세를 인하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非APEC 지역인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과 물가수준의 변화를 논의한다.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는 非APEC 지역도 APEC 국가의 관세인하율과 같은 비율의 관세를 인하해야 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명목소득이 변하게 된다. 즉,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역외 국가는 역내의 관세인하가 역외국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역내로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역외국의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된다(〈表 13〉 참조). 전세계 국가가 관세를 일정 비율로 인하할 때 어떤 국가의 명목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관세의 변화로 인한 수출의 변화와 더

불어 교역조건의 변동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관세변화로 인한 수출변동과 명목소득의 변동을 주로 논의하기로 한다. 개방적 지역주의하의 APEC 관세인하가 역외국가의 명목소득의 증가로 연결되는 이유는 수출증가에 따른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증가로 생산요소가 가격이 상승하고,⁴⁰⁾ 기업에 생산요소를 공급함으로써 받는 수입이 소득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는 역외국도 관세를 낮춤으로써 자연스럽게 역외국의 역내국으로

〈表 21〉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의 지역별 소득변화율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1.54	2.54	3.65	4.37	2.10	2.73	3.19	3.27	3.71	4.25
말레이시아	0.26	0.44	0.59	0.62	0.23	0.32	0.41	0.45	0.54	0.56
멕시코	-0.17	-0.22	-0.23	-0.21	-0.03	0.22	0.40	-0.08	0.10	-0.21
미국	-0.27	-0.41	-0.53	-0.60	-0.73	-1.15	-1.39	-0.89	-1.14	-0.88
싱가포르	3.24	5.25	7.42	8.80	3.74	4.18	4.45	5.81	6.07	7.87
인도네시아	0.26	0.39	0.52	0.60	0.65	1.07	1.34	0.80	1.06	0.76
일본	1.94	2.94	3.86	4.35	2.56	3.02	3.25	3.54	3.76	4.27
중국	0.50	0.70	0.85	0.93	1.04	1.57	1.88	1.20	1.51	1.11
칠레	-0.38	-0.45	-0.41	-0.32	0.03	0.49	0.79	0.03	0.33	-0.05
캐나다	-0.87	-1.32	-1.72	-1.93	-1.54	-2.13	-2.46	-1.98	-2.31	-2.14
대만	1.05	1.55	1.95	2.10	1.69	2.34	2.75	2.21	2.63	2.33
타일랜드	-0.34	-0.82	-1.50	-2.01	0.02	0.37	0.57	-0.50	-0.31	-1.38
필리핀	0.85	1.18	1.28	1.18	1.00	1.19	1.32	1.34	1.49	1.36
한국	1.55	2.29	2.90	3.17	1.95	2.31	2.52	2.67	2.88	3.11
호주	0.23	0.45	0.78	1.04	0.11	0.14	0.26	0.50	0.61	0.94
유럽	-0.33	-0.54	-0.77	-0.91	-0.71	-1.09	-1.31	-0.94	-1.16	-1.03
기타 지역	-0.98	-1.56	-2.15	-2.50	-0.86	-0.71	-0.61	-1.44	-1.35	-2.11

40)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역외국은 관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역내국만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역외국의 수출 증가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터의 수입도 증가하게 되고, 역외국의 역내에 대한 수출도 개방적 지역주의보다는 줄어들게 됨으로 역외국의 조건부 지역주의하의 명목소득의 증가율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에 대한 명목소득 증가율은 <表 21> 맨 아래 두 칸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 두 지역에서의 명목소득이 개방적 지역주의하의 명목소득수준보다도 낮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역외국들의 명목소득 감소의 원인을 본원적 생산요소가격 변동에서 찾아보기 위해서는 본원적 생산요소의 가격변화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表 22>는 본원적 생산요소의 예상 가격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賃金과 資本收益率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생산요소의 가격하락은 명목소득하락으로 연결된다.

<表 22>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의 지역별 임금변화율

<賃金 변화율>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유럽	-0.10	-0.17	-0.23	-0.27	-0.34	-0.57	-0.71	-0.40	-0.54	-0.38
기타 지역	-0.26	-0.40	-0.53	-0.60	-0.15	-0.01	0.08	-0.28	-0.19	-0.46

<資本收益率 변화율>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유럽	-0.11	-0.18	-0.25	-0.29	-0.36	-0.61	-0.75	-0.43	-0.57	-0.41
기타 지역	-0.22	-0.34	-0.45	-0.50	-0.12	0.01	0.10	-0.23	-0.14	-0.38

개방적 지역주의에서와 같이 전세계 교역자유화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인하로 물가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非APEC 지역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는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는 반대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적 지역주의에서와는 달리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 이들 지역의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것은 이들 역외국들의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품가격 하락이 이

들 지역의 전반적인 물가하락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非APEC 국가의 관세인하로 명목소득은 하락하지만, 물가수준의 하락 역시 동반됨으로 전반적인 후생이 향상된다.

한편 APEC 회원국의 경우, 명목소득과 후생수준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관계는 찾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 한국의 명목소득증가율은 필리핀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예측되나(〈表 21〉 참조), 〈表 20〉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후생수준증가율은 오히려 필리핀보다 낮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表 23〉의 물가수준의 변화율을 참고하여야 한다. 〈表 23〉에 따르면, 한국과 필리핀의 물가는 반대로 움직일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 필리핀의 물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각 관세인하 시나리오하에서 한국의 물가수준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한국의 물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表 14〉), 역외국들도 관세를 인하는 〈表 23〉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역외국이 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한국의 상품에 대한 역외국의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가격이 오르게 되고, 일반균형모형에서 수출품의 수출가격 상승은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⁴¹⁾ 교역조건은 수출품의 수출가격과 수입품의 수입가격의 비율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는 한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러한 교역조건 개선은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한 명목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⁴²⁾

41) 어떤 이유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국내수요가 줄어들면, 수출수요증가를 상쇄하게 되어 국내 생산품에 대한 가격변동이 없을 수 있으나, 〈表 21〉에서 보듯이 한국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42)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수출감소율보다도 교역조건 개선률이 더 높다면 명목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다.

〈表 23〉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의 지역별 물가지수변화율

(단위 : %)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0.82	1.39	2.04	2.47	1.06	1.37	1.62	1.76	2.00	2.38
말레이시아	-1.59	-2.50	-3.46	-4.06	-1.65	-1.60	-1.56	-2.56	-2.52	-3.56
멕시코	-0.17	-0.21	-0.21	-0.18	-0.11	0.05	0.17	-0.14	-0.03	-0.22
미국	-0.34	-0.50	-0.64	-0.70	-0.78	-1.17	-1.38	-0.95	-1.16	-0.94
싱가포르	-0.27	-0.37	-0.42	-0.43	-0.19	-0.10	-0.04	-0.29	-0.23	-0.38
인도네시아	-0.08	-0.09	-0.09	-0.07	0.19	0.49	0.69	0.19	0.38	0.08
일본	1.18	1.76	2.25	2.50	1.39	1.49	1.52	1.93	1.96	2.38
중국	-0.08	-0.11	-0.10	-0.07	0.27	0.61	0.80	0.21	0.40	0.05
칠레	-0.45	-0.57	-0.58	-0.53	-0.18	0.14	0.36	-0.24	-0.03	-0.34
캐나다	-0.81	-1.21	-1.57	-1.74	-1.41	-1.94	-2.23	-1.80	-2.09	-1.94
대만	0.01	-0.06	-0.21	-0.33	0.41	0.85	1.12	0.34	0.61	0.01
타일랜드	-0.81	-1.35	-1.95	-2.33	-0.59	-0.37	-0.25	-1.17	-1.05	-1.90
필리핀	-0.75	-1.27	-1.92	-2.38	-0.74	-0.68	-0.64	-1.25	-1.19	-1.92
한국	0.29	0.35	0.32	0.24	0.51	0.74	0.88	0.54	0.67	0.38
호주	0.00	0.09	0.28	0.46	-0.19	-0.25	-0.19	0.04	0.09	0.36
유럽	-0.39	-0.62	-0.85	-0.98	-0.76	-1.11	-1.32	-0.99	-1.19	-1.08
기타 지역	-1.12	-1.73	-2.33	-2.67	-1.07	-0.98	-0.93	-1.69	-1.63	-2.33

(3) 무역수지

APEC 역내 국가중 많은 국가의 무역수지는 개방적 지역주의에서 전세계 교역자유화로 바뀌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두가지 지역주의하에서 예상되는 무역수지의 악화 폭이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이고, 일본, 대만과 타일랜드의 무역수지 개선 폭도 兩 地域主義하에서 별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칠레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는 무역수지가 약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는 오히려 소폭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개방적 지역주의보다는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 무역수지가 소폭으

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호주는 한국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를 세가지 지역주의중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나라와는 반대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 무역수지가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적 지역주의와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의 무역수지를 비교할 때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의 시장 개방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수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들 두 나라의 교역조건의 악화도 무역수지 악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관세인하 시나리오하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관세인하 시나리오하의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의 무역수지 적자는 개방적 지역주의에서 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은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의 물가와 소득수준 논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지역의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전체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 보고된 무역수지 예상변동액 중에서 배타적 지역주의(〈表 10〉), 개방적 지역주의(〈表 15〉) 및 전세계 교역자유화(〈表 24〉)를 비교할 때, 전세계 국가의 관세인하에 대한 무역수지 예상 변화액을 보여주는 〈表 24〉가 가장 바람직한 면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역수지에 대한 예상변동액을 제시한 이들 세가지 地域主義중에서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던 일본과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폭이 앞에서 논의한 배타적 지역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예상되는 무역수지 변화액보다는 훨씬 낮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나라의 무역수지가 개방적 지역주의와 배타적 지역주의하에서 주목할 만한 변동이 없다는 점 외에도, 역외국인 유럽과 기타 지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세가지 지역주의중에서 가장 낮게 되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表 24〉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의 지역별 무역수지 변화액
(단위 : 백만 달러)

	3333	5050	6666	7575	5033	6633	7533	6650	7550	7566
뉴질랜드	121.55	200.90	288.51	344.31	180.2	244.0	286.3	270.1	312.0	339.0
말레이시아	15.55	47.27	87.95	109.31	-80.3	-142.7	-171.9	-39.3	-67.9	25.6
멕시코	-260.70	-398.28	-528.49	-601.27	-282.6	-283.6	-280.3	-421.3	-418.2	-554.3
미국	569.73	983.72	1473.97	1803.59	530.9	429.2	351.6	917.4	853.7	1422.2
싱가포르	598.47	956.77	1335.89	1571.53	596.8	582.7	574.4	960.9	952.0	1355.6
인도네시아	-118.96	-186.12	-252.53	-290.63	-166.5	-198.9	-215.2	-236.5	-253.6	-294.0
일본	3198.72	5051.13	6924.97	8031.24	6134.1	8922.9	10591.3	8219.8	9860.1	9174.2
중국	-452.89	-764.91	-1103.66	-1302.70	-664.1	-856.7	-977.1	-1021.2	-1143.5	-1319.8
칠레	16.29	36.56	66.55	89.43	22.6	34.0	43.3	48.6	57.8	77.8
캐나다	-613.63	-930.89	-1221.31	-1374.92	-864.9	-1083.0	-1208.6	-1185.3	-1309.8	-1391.5
대만	555.72	881.66	1203.28	1381.34	668.2	774.2	840.8	1009.0	1079.6	1295.5
타일랜드	223.51	285.49	302.34	289.32	109.9	-1.3	-70.0	160.2	93.8	208.5
필리핀	-47.81	-80.91	-121.42	-150.43	-71.0	-90.0	-100.7	-104.1	-113.9	-138.4
한국	194.41	259.03	279.27	261.56	-85.4	-368.0	-539.9	-45.3	-218.0	69.5
호주	225.55	392.62	598.68	743.63	374.5	554.5	688.3	592.4	726.6	765.5
유럽	-2499.50	-4033.21	-5657.01	-6655.36	-4298.9	-6140.5	-7294.6	-6034.9	-7177.2	-7059.9
기타 지역	-1726.23	-2700.78	-3677.03	-4249.63	-2103.6	-2377.0	-2518.1	-3090.3	-3233.5	-3975.0



V. 結論 및 政策示唆點

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亞·太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3차례의 정상회담중 2010년부터 2020년까지 APEC 地域 貿易自由化를 선언한 보고르 정상회담과 APEC의 기본 원칙중의 하나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한 오사카 회담은 APEC의 방향설정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될 제 4차 정상회담은 오사카 선언을 구체화시킬 방안을 열거한 個別實行計劃(IAP)과 共同實行計劃(CAP)을 검토,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의 제 2장 2절에서는 지난 8월 필리핀에서 열린 APEC 고위실무자회의에 제출된 각국의 실행계획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였는데, 각국의 실행계획이 UR에서 합의한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10/2020년 APEC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UR에서 합의한 관세인하는 WTO 체제하에서 실행될 것이고, APEC은 WTO 관세인하이후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만 경제협력체로서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APEC이 WTO의 관세인하를 실행한 후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0년/2020년까지 APEC 지역에서 완전한 貿易自由化를 이룩한다는 선언 외에는 아직까지 APEC에서 관세인하의 비율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합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일정 시점에 完全 無關稅化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WTO 관세인하이후 APEC 관세인하에 대한 10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고 이러한 가정하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들 10 가지 시나리오중 4 가지 관세인하 시나

리오는 관세를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없이 동일하게 일정비율로 인하하는 것이고, 나머지 6 가지 시나리오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다른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되 선진국이 높은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APEC 국가들이 서로 합의한 關稅引下率이 있다면, 그 비율로 관세를 인하할때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서처럼 다수의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각각의 경우뿐 아니라 시나리오간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모형과 예측결과에 대한 安定性(robustness)을 테스트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일반균형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이 연구는 APEC 국가들이 회원국 상호간에 관세를 인하할 경우 APEC의 모든 국가가 더 높은 수준의 후생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세인하폭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후생수준이 더욱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貿易障壁의 완화 및 제거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한편, 역외국가인 유럽과 기타 지역은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APEC이 배타적인 지역협정으로 유지될 경우 이들 국가는 APEC의 배타적 지역주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새로운 지역협정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국가간 貿易紛爭이 배타적 지역주의 사이의 분쟁으로 격화되고, Jagdish Bhagwati (1993)가 지적했듯이 지역주의의 확산이 多者間 體制인 WTO를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APEC 지역의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외에도 APEC이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경제적 효과를 관세인하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는데, 인하된 관세의 적용을 역내국뿐만 아니라 역외국에 까지 확대한다면 경제이론상으로는 貿易轉換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지게 되어 역내국들의 후생이 더 증가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Young과 Huff(1995)의 연구와는 달리 배타적인 지역주의보다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역내 국가들과 역외국들의 후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APEC이 추구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는 APEC 국가들의 후생증진 외에도 인하된 관세의 MFN 적용으로 지역주의가 세계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는 APEC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지역협정이 추구하여 할 정책인 것으로 보이며,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한 APEC은 다른 지역주의도 개방적으로 운영되도록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역외국의 관세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건부 지역주의에 대한 경제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非APEC 지역인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중 한 지역이 APEC의 인하된 관세혜택을 보기 위하여 APEC의 관세인하만큼 관세를 인하할 때 모든 관련 국가들의 후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은 후생향상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건부 지역주의는 APEC이 추구할 수 있는 지역주의 방안중 가장 실현성이 높은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세계 교역자유화란 개념을 통하여 개방적 지역주의를 넘어 APEC이 세계교역 자유화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전세계 교역자유화란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 인하된 관세적용을 역외국까지 확대한 APEC이 역외국의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건부 지역주의하에서 非APEC 지역인 유럽연합과 기타 지역이 동시에 APEC 관세인하와 같은 크기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전세계 교역자유화하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4가지 지역주의중에서 가장 높은 후생을 누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장벽의 완화가 결국 모든 국가의 厚生 증진으로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UR에서와 같은 多者間 關稅引下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本 연구는 地域主義도 운영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과 세계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협정들이 배타적으로 운영된다면 7년 동안의 협상으로 어렵사리 출범한 다자간 체제인 WTO의 위상을 훼손시킬 수 있으나,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는 이러한 地域主義의 배타성을 제거함과 아울러 역내 국민들의 후생을 배타

적 지역주의에서 보다도 더 증진시킬 수 있어,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가 APEC의 기본 원칙의 하나로 지켜져야 함을 이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장은 곤란할 수 있으나 APEC이 WTO를 통하거나 EU와 같은 지역협정과 공조하여 지역주의를 통한 전 세계교역자유화도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역할은 단지 아시아 국가와 유럽국가간의 경제협력모색뿐 아니라 ASEM이 APEC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때 세계교역자유화는 실현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논의된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정태적 일반균형시물레이션 모형을 사용하여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를 2010년이나 2020년 등의 특정 시점과 대비시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동태적 모형을 사용하면 결과의 해석상의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나, 현재의 기술적 여건으로는 多국가를 포함하는 동태적 모형의 작성은 용이하지 않다. 정태적 모형외에 이 보고서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PEC의 관세인하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관세를 인하하면 각 국의 경제는 構造調整에 상당한 액수의 費用을 지불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숙련 노동자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고 그 직업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자원을 고려할 때 調整費用의 중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도출된 후생변동에 대한 추정치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模型 및 모수와 모형에서 가정한 조건하에서 예측된 最上值(upper boundary)로 해석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APEC 관세인하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시물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더 다양한 형태의 관세인하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내에서도 각각 다른 비율의 관세인하 시나리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모형은 완전경쟁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최근에는 규모의 경제로 파생되는 이익이 모

형에 반영되는 불완전경쟁 모형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불완전경쟁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對外經濟政策研究院(1995), APEC 會員國의 經濟現況과 對韓 經協關係
柳莊熙 (1995), APEC과 신국제질서, 나남출판사.
- 鄭仁教, 表鶴吉 (1996), WTO 貿易自由化의 一般均衡效果分析, 對外經濟
政策研究院.
- Armington, Paul(1969),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MF Staff Papers 16, pp. 159-178.
- Bhagwati, J.(1993),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 An Overview,” in
New De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edited by J. de Melo and
A. Panagariy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gsten, C. Fred, and Marcus Noland (1993), Pacific Dynamism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 Cheong, Inkyo (1995), The Economic Effects o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and Asia-Based Free Trade Area (AF-11) : A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Ph.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Cox, David, and Richard G. Harris (1992), “North America Free Trade and
its Implication for Canada : Results from a CGE Model of North
American Trade”, The NAFTA Economywide Modeling Conference,
U.S.I.T.C., Washington, D.C., February 24-25.
- de Melo, Jaime, Arvind Panagariya, and Dani Rodrik (1992), “Regional
Integration : An Analytical and Empirical Overview,” Presented at
tyhe World Bank Conference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 Dixit, Avinash and Joseph E. Stiglitz (1977), “Monopolistic Competition

- and Optimum Product Diversity”, American Economic Review 67 (3), pp. 297-307.
- Francois, Joseph F., Bradley McDonald, and Hakan Nordstrom (1995), “Assessing the Uruguay Round”, The NAFTA Economywide Modeling Conference, U.S.I.T.C., Washington, D.C., February 24-25.
- GATT (1994),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Legal Texts, GATT Secretariat, Geneva.
- Harberger, Arnold C.(1964), “Taxation, Resource Allocation, and Welfare”, in The Role of Direct and Indirect Taxes in the Federal Reserve Syste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thaway, Dale E. and Merlinda D. Ingco (1995), “Agricultural Liberalization and the Uruguay Round,” presented at The Uruguay Round and the Developing Economies, World Bank, January 26-27.
- Hertel, Tom, Will Martin, Koji Yanagishima, and Betna Dimaranan(1995), “Liberalizing Manufactures Trade in a Changing World Economy,” The Uruguay Round and the Developing Economies, edited by Martin and Winters.
- Hunter, Linda, James R. Markusen, and Thomas F. Rutherford (1992), “Trade Liberalization in a Multinational-Dominated Industry : A Theoretical and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The NAFTA Economywide Modeling Conference, U.S.I.T.C., Washington, D.C., February 24-25.
- Jomini. P., J.F. Zeitsch, R. McDougall, A. Welsh, S. Brown, J. Hambley, and J. Kelly (1991), SALTER: A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the World Economy, Vol. 1. Model Structure, Database and Parameters, Canberra, Australia: Industry Commission.
- Mercenier, Jean (1995), “Can ‘1992’ Reduce Unemployment in Europe? On Welfare and Employment Effects of Europe’s Move to a Single

- Market”, Journal of Policy Modelling 17(1), pp. 1-38.
- Milnes, Gayle (1996), “Harmonising Sub-Regional Arrangements within APEC”, presented at Conference on Unsolved Issues of APEC and West Studies, Seoul, October 29-30, 1996.
- Norman, Victor D. (1990), “Assessing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34, pp. 725-751.
- Shoven, John B. and John Whalley (1984), “Applied General-Equilibrium Models of Tax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 An Introduction and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II, pp. 1007-1051.
- Thurrow, L. (1992), Head to Head :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 William Morrow.
- Vanek, Jaroslav (1969), General Equilibrium of International Discrimination -The case of customs un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 Viner, Jacob (1950), The Customs Unions Issu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ew York.
- WTO(1995), Regionalism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World Trade Organization, Geneva, April 1995.
- Young, Linda M. and Karen M. Huff(1995), Free Trade in the Pacific Rim : On What Basis?”, in Hertel, Thomas W. (1995), Global Trade Analysis : Modeling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EP 發刊資料 案內

■ 政策研究

- | | | |
|-------|--|-----|
| 90-01 |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 金學洙 |
| 90-02 |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 閔充基 |
| 90-03 |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 金宗萬 |
| 90-04 |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 孫讚鉉 |
| 90-05 |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 金泰俊 |
| 90-06 | ASEAN 主要國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 柳在元 |
| 90-07 |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 金學洙 |
| 90-08 |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 金南斗 |
| 90-09 |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90.10) | 張義泰 |
| 90-10 |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 徐相祿 |
| 91-01 |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 姜興求 |
| 91-02 |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 金宗萬 |
| 91-03 |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 金廷洙 |
| 91-04 |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 李長榮 |
| 91-05 |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 吳勇錫 |
| 91-06 |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 朴濟勳 |
| 91-07 |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 金時中 |
| 91-08 |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 李相學 |
| 91-09 |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 曹琮和 |
| 91-10 |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 閔充基 |
| 91-11 |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91.07) | 金學洙 |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的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際比較 ('91.08)	兪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92.02)	共 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日本의 貿易障壁 ('92.03)	兪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①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②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③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②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③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④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⑤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允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⑥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④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⑤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⑦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⑧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賃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 ('92.10)	共 同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의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93.03)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93.03)	共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93.03)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 ('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和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的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 ('93.09)	共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的 方向과 課題 ('93.11)	王允鍾
93-23	日本의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 ('93.11)	李昌在
93-25	UR 총집검(增補版) ('93.12)	共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⑥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93.12)	任千錫
93-32	環境關聯 經濟的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同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權皓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朴大權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 : 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 ('93.12)	金仁竣
93-40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共同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尹健秀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93.12)	權寧燦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洪裕洙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韓弘烈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94.02)	裴眞永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韓宅煥
94-05	WTO出帆과 新交易秩序-분야별 內容과 示唆點 ('94.07)	共同
94-06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 ('94.11)	洪裕洙

94-07	外國人 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 (’94.11)	王允鍾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ticce (’94.12)	共 同
94-09	21世紀 東北亞經濟協力을 위한 推進戰略 (’94.12)	李昌在
94-10	韓中經濟協力과 在中國同胞의 役割 (’94.12)	金時中
94-11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 (’94.12)	魯在峯
94-12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協力方案 (’94.12)	洪裕洙
94-13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94.12)	丁相朝
94-14	外換 自由化와 換危險管理 (’94.12)	朱尙榮
94-15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産業構造變化 研究 (’94.12)	金龍龜·朴成勳
94-16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 政策의 方向 (’94.12)	李正淵
95-01	日本企業의 對中進出: 要業種의 成果分析과 向後展望 (’95.05)	申晚秀·李掌魯
95-02	國際金融市場의 統合과 資本費用 (’95.05)	權才重
95-03	중국 內需市場의 構造的 特性和 進入 流通障壁 :消費財 工山品 市場을 中心으로 (’95.05)	金益洙
95-04	亞·太 經濟協力の 新構想 (’95.06)	李載星
95-05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 (’95. 10)	韓宅煥
95-06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95.10)	李昌在
95-07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開發 및 評價 (’95. 12)	金寬濫
95-08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制度 (’95.12)	王允鍾
95-09	貿易과 環境의 連繫 (’95.12)	李鎬生
95-10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 經協에 미치는 영향 (’95.12)	金益洙
95-11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95.12)	金準東·康仁洙

95-12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構想('95.12)	洪裕洙
96-01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96.04)	元容杰
96-02	韓國大企業集團의 內部去來行爲와 競爭政策 ('96.05)	禹榮洙
96-03	金融·資本自由化에 따른 金融危機 事例와 政策示唆點 ('96.08)	朱尙榮
96-04	貿易과 勞動基準의 連繫 ('96.08)	王允鐘
96-05	WTO 貿易自由化의 一般均衡效果分析 ('96.08)	表鶴吉·鄭仁教
96-06	保護貿易의 費用分析 ('96.08)	金南斗
96-07	派生金融商品市場의 開放과 危險管理('96.09)	金寅培
96-08	WTO 體制의 定着 新通商議題('96.10)	共同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的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侷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柳在元
92-04	EA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鈺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濫
93-14	日本의 金融自由化와 엔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93.12)	俞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鉞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戰換期の 臺灣經濟 ('94.02)	柳在元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94.04)	金博洙·金廷洙
94-07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 ('94.05)	共同
94-08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4.05)	金準東
94-09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94.10)	金尙謙
94-10	對日貿易 赤字國의 對應실태와 示唆點: 臺灣의 경우 ('94.10)	任千錫
94-11	環境産業의 國際動向 및 政策示唆點 ('94.10)	張台求
94-12	UN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現況 및 政策課題 ('94.11)	李鎬生
94-13	1995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12)	共同
94-14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94.12)	王允鍾
94-15	서비스交易과 세이프가드 ('94.12)	蔡 旭
94-16	글로벌化 時代에서의 輸出과 海外直接投資 ('94.12)	金準東
94-17	豆滿江地域開發事業과 韓半島 ('94.12)	金益洙
94-18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級影響 ('94.12)	李昌在
94-19	金融監督規制의 現況과 對應方案 : 資本適正性을 中心으로 ('94.12)	曹琮和
94-20	ASEAN 自由貿易地帶의 結成과 韓國의 對外貿易政策 ('94.12)	吳尙勉
94-21	OECD 主要國의 ODA 支援現況과 韓國의 對應戰略 ('94.12)	金學洙
94-22	東北亞 環境協力の 推移와 課題 ('94.12)	韓宅煥
94-23	서비스交易에 있어서의 交易障壁 : 美國, 日本, EU의 서비스 讓許表를 中心으로 ('94.12)	禹榮洙
94-24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와 對東아시아 貿易自由化 方案 ('94.12)	金尙謙
94-25	엔高下에서의 日本企業의 對應實態와 示唆點 ('94.12)	任千錫

- 94-26 專門職業서비스 供給者의 資格認定 ('94.12) 金址鴻
- 94-2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ugene John Park
United States :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94.12)
- 94-28 海外資金調達の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影響 ('94.12) 張義泰
- 94-29 技術標準의 國際的 現況과 정책시사점('94.12) 孫讚鉉
- 95-01 UR 이후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懸案 ('95.04) 兪鎮守
- 95-02 貿易과 環境 : GATT/WTO의 논의 ('95.04) 李鎬生
- 95-03 主要 先進國의 對韓 輸入規制 形態 比率分析 ('95.05) 康仁洙
- 95-04 農畜産物 市場開放에 따른 輸入管理方案 ('95.06) 姜奉淳
- 95-05 일본기업의 對 아시아 직접투자 ('95.06) 李東琪 · 李允喆
- 95-06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95.08) 金準東
- 95-07 WTO體制下의 南北韓 經濟 交流 李相萬
: 南北韓 經濟交流와 國際規範과의 調和方案 ('95.10)
- 95-08 APEC 經濟協力과 原產地規程 ('95.10) 韓弘烈
- 95-09 共同研究開發과 國際的 라이선스契約에 관한 兪鎮守
主要國의 競爭政策 ('95.11)
- 95-10 1996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5.12)
- 95-11 中國經濟의 國際化 評價 ('95.12) 鄭永祿
- 95-12 OECD 統計活動 現況과 示唆點 ('95.12) 尹昌仁
- 95-13 北韓의 經濟實狀과 우리의 北韓經濟 評價에서 제기되는 일련 趙明濟
의 問題點('95.12)
- 96-01 APEC 主要國의 交易構造와 自由化의 經濟的 效果 金尙謙
- 96-02 最近의 世界經濟動向과 主要 對外經濟懸案 ('96.06) 共同
- 96-03 海外直接投資의 評價와 政策課題 ('96.06) 金時中
- 96-04 우리나라의 開途國地位 問題에 관한 研究 ('96.07) 張義泰
- 96-05 國際資本移動이 國內資本形成 및 經常收支에 全周省
미치는 效果 ('96.10)

■ 세미나資料

- 90-01 EC 統合과 政策對應 ('90.01) 共同
- 90-02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4) 朴泰鎬

- 90-03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吳勇錫
展望 ('90.06)
- 90-04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The Way Ahead ('90.10)
Jang-Won Suh & Jae-Bong Ro (eds.)
- 91-01 EC 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91.02) 閔充基
- 91-02 Uruguay Round :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09)
Taeho Bark & Wook Chae (eds.)
- 91-03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91.12) Jang-Won Suh (ed.)
- 92-01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 Problems and Prospects ('92.06) Chung Ki Min (ed.)
- 92-02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09) Jehoon Park
- 93-01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02) Jin Young Bae (ed.)
- 93-02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Globalization Policy ('93.05) Jang-Won Suh
- 93-03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Bak-Soo Kim
- 93-04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93.12) Chang-Jae Lee
- 94-01 韓日經濟協力の 新構想 ('94.06) 任千錫 編
- 94-02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4.06) 金時中 編
- 94-03 新세계무역체제와 한국 -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 초청강연 ('94.09) 孫讚鉉 編
- 94-04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94.11) Yoo-Soo Hong (ed.)
- 94-05 Trade-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94.12) Taek-Whan Han (ed.)
- 95-01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の 未來 ('95.04) 金時中
- 95-02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95.11) Sung-Hoon Park

- 96-01 21世紀를 向한 韓·中 共同繁榮의 摸索('96.2) 北京支院
- 96-02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allenges Jane Khanna &
to the Nation-State: Economic Cooperation Chang-Jae Lee
in the Yellow Sea Rim ('96.04) (eds.)
- 96-03 WTO 出帆 1年の 評價와 向後 展望 ('96.06) 孫讚鉉 編
- 96-04 環渤海灣 經濟協力強化 方案 摸索 ('96.06) 鄭永祿

■ Working Paper

- 90-01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08) 金廷洙
- 90-02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08) L.Y.Mytelka
- 91-01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01) 郭承滌
- 91-02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05) 朴泰鎬
- 91-03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07) 洪裕洙
- 91-04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07) 柳莊熙
- 91-05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Taeho Bark
- 92-01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09) Jang-Hee Yoo
- 93-01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01) In-Soo Kang
- 93-0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03) Jai-Won Ryou · Byung-Nak Song
- 93-03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06) Sung-Hoon Park
- 93-04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Wook Chae

Practices ('93.06)

- | | | |
|-------|---|-------------------------------|
| 93-05 |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 Chung Ki Min |
| 93-06 |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 Joo-Sung Jun |
| 93-07 |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93.12) | Yoo Soo Hong |
| 93-08 |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3.12) | Jin-Soo Yoo |
| 94-01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94.01) | Chang Jae Lee |
| 94-02 |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n and Russia ('94.08) | Je Hoon Park |
| 94-03 |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94.11) | Yoo Soo Hong |
| 96-01 |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ic: A Korean Perspective | Wan-Soon Kim |
| 96-02 |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nd Prospects | June-Dong Kim
Yunjong Wang |
| 96-03 |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 Suchan Chae |
| 96-04 |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Issues Korea's Role and Priorities in the WTO System ('96.08) | Chan-Hyun Sohn |
| 96-05 | 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y ('96.10) | Wook Chae |

著者略歷

鄭仁教

1985년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5년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재 對外經濟政策研究院 責任研究員

政策研究 96-09

APEC 貿易自由化의 經濟的 效果

1996年 11月 11日 印刷

1996年 11月 13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서울特別市 瑞草區 廉谷洞 300-4
電話: 3460-1001, 1114 FAX: 3460-1122, 1190
登錄: 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刷 오름시스템(주) 전화: 273-7011

* 本報告書 內容의 無斷 轉載·譯載·複瀆等 禁함.

ISBN 89-322-1040-3

값 7,000원